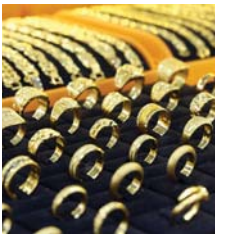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14.95	↑ 코스닥	828.52
	(+9.94)		(+1.28)
↓ 금리 (미국 9년)	3.531	↓ 환율	1304.00
	(-0.056)		(-1.80)

금값
온스 당 2089.7달러
사상 최고치 경신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제주서 국내 첫 SAR 위성 발사

국내 최대 우주위성개발 업체 한화시스템이 자체 제작한 고해상도 지구 관측위성(SAR·합성개구레이다)이 발사됐다. SAR은 공중에서 지상·해양에 쏜 레이더의 반사파를 미세한 시간차로 합성,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인근 해상에 위성이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다.

/뉴시스

서든데스 경고 최태원 4인 부회장 교체 유력

SK그룹, 7일 임원인사 예고
대대적 세대교체 단행 전망
2인자에 사촌동생 최창원 거론
임원들도 대폭 물갈이 예상

SK그룹도 연말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할 전망이다. 글로벌 위기 속 주요 대기업들이 안정적 쇄신을 선택한 가운데, 핵심 경영진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부회장단 4인과 면담을 통해 경영에서 물러나달라고 요청했다.

SK그룹 부회장단 4인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장동현 SK㈜ 대표와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 등이다. 부회장단이 퇴진하면 유정준 미주대외협력총괄과 서진우 중국담당도 동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SK그룹은 오는 7일 임원 인사 발표가 유력하다. 다만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는 만큼,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외면하기 어렵다.

SK그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2월 첫째주 목요일에 임원 인사를 발표했지만, 계열사별로 이사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최태원 ‘서든 데스’ 위기감

최태원 회장이 최근 ‘SK 최고 경영

자(CEO) 세미나’에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서든 데스’를 언급하면서 대대적인 개편 의지를 암시했다. SK그룹은 2016년 당시에도 60대였던 부회장단을 대거 교체하며 40대였던 현재 경영진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실제로 부회장단은 1960년대 초반생들로, 모두 60대에 들어섰다. 조 의장이 63세, 김 부회장이 62세, 장 대표와 박 대표가 각각 60세다. 유정준 총괄이 61세, 서진우 중국담당도 62세다.

이미 다른 대기업들도 최근 인사를 통해 세대 교체에 나섰다. LG그룹은 권영수 부회장이 물러나고 LG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들도 새로운 경영자를 선임했다. 현대차그룹도 임원 인사에 앞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수장을 교체하며 세대교체를 예고한 상태다. 삼성도 안정 속 젊은 차기 경영자를 대거 중용했다. SK그룹도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재계 2위 올렸지만 위기 대처 못해

SK그룹 부회장단은 2016년 이후 주요 계열사를 두루 맡으며 SK그룹을 진두지휘해왔다. 공격적인 M&A와 체질 개선을 통해 SK그룹이 재계 2위로 올라서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경기불황에 ‘희망퇴직 카드’ 꺼낸 유통가

GS리테일·11번가 등 희망퇴직 실시
내수침체에 인건비 줄여 수익 모색

경기불황에 따른 임금,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수침체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유통업체가 희망 퇴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섰다. 인건비를 줄여 조직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수익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연말연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유통사들의 내부 분위기는 매섭기만 하다.

4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GS리테일, 11번가, SPC, 매일유업, 롯데홈쇼핑 등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섰다.

우선 SPC 계열사 중 파리크라상은 4개 브랜드에 대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유는 원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1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1년6개월치의 급여와 1년치 학자금 지원된다.

롯데홈쇼핑 역시 지난 9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대상

은 만 45세 이상이면서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직원이다. 퇴직자에게는 2년치 연봉과 재취업 지원금, 자녀 교육 지원금이 지급됐다.

롯데홈쇼핑 측은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변화의 목적으로 자발적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의 계열사로 롯데시네마와 롯데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컬처웍스도 지난달 29일부터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다. 입사 3년차 이상 직원 대상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퇴직위로금과 재취업 준비금을 지원하는 조건이다. 롯데컬처웍스의 희망퇴직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같은날 부터 롯데마트도 전 직급별 10년차 이상 사원 대상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퇴직 확정자에게 최대 27개월치 급여와 직급에 따른 재취업 지원금 2000만~5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SK그룹의 오픈마켓 계열사 11번가는 지난달 27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11번가가 희망퇴직을 실시

하는 것은 2018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만 35세 이상,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이다. 회사 측은 “회사와 구성원 모두 지속해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GS리테일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GS측은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매일유업 역시 지난 8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자는 법정 퇴직금 이외에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통상임금 18개월치를 위로금으로 받게 되며 퇴직 후 2년 동안 경조사 시 물품을 제공받고 회사 측에서 재취업 교육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 유통업체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보수적이어도 직원들은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포화 등으로 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최악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무직 공직자 인선 브리핑에서 후보자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경제부총리 최상목, 국토부장관 박상우 지명

尹 정부, 내각 2기 시동
여성장관 후보도 3명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상당수 부처 수장을 한꺼번에 교체해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각 2기 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2기 내각을 차례차례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무직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쳐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경제정책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발탁했다.

김 비서실장은 박상우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조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정통 관료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했다”며 “국민 주거 안정과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후보자 중 가장 젊은 70년생으로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쌓고 원만한 조직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어촌활력, 해양바이오 육성 등 현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낙연, 신당 창당설에 “기다림에 바닷… 때가 되면 말할 것” /사진 뉴시스

▲尹, 정책실장 배우자에 “부군 집에 일찍 못 들어오더라도 잘 부탁”

▲군,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3차 시험 발사

▲민주 비명계 연쇄 탈당, 이달 중순 ‘분수령’



▲홍익표 “연합 비례정당 필요성 있지만… 위성정당 논란 피하기 어려워” /사진 뉴시스

▲여 지도부 ‘희생’ 미상정에 혁신위, ‘김기현 사퇴·비대위 전환’ 카드 만지작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온스 당 2089.7弗

〈한화 272만 7000원〉

금 가격 2000弗대 안착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일각선 추가 상승 분석도



국제 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금값도 오르며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일 서울의 한 귀금속 매장 모습. 금값 상승은 최근 달러 약세 및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뉴스시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온스 당 2089.7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재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요가 몰린 까닭이다. 상승 요인이 아직 유효해 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선물시장 금 가격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온스 당 2089.7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2020년 8월 기록한 2069.4달러다. 지난 달 27일 2012.4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6개월 만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지 4거래일 만이다. 지난달 10일 온스당 1937.70달러였던 금 가격은 거래일 평균 0.37%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다.

이번 금 가격 상승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인플레이션 헤지(화폐가치 하락기에 화폐를 가치보전이 가능한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 수단으로 금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매파적(통화 긴축정책 선호)으로 간주되는 일부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통화 완화정책 선호)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1일 내놓은 일부 매파적인 메시지가 시장에서 ‘균형 맞추기’용 발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좌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는 긍정적이지만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준금리를 언제든 다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균형 맞추기’용 발언으로 해석하면

서 긴축 종료 전망에 힘이 실렸다. 같은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는 내년 3월 이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64.7%로 전망했다. 한 주 전(21%)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의 휴전 협상 결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안전자산인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CNN,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결렬 이후 군사작전을 재개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이어 남부에도 작전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지

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초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격화될 전망이 나오면서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홍해상에서 미 해군 군함이 상선과 함께 공격당했다”며 “후티(예멘 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이런 공격은 이란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란에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냈다.

같은날 이스라엘 공영방송인 칸(Khan)도 이스라엘의 대내 정보기관인 신베트(Shin Bet)의 로렌 바르 국장이 “이스라엘은 수년이 걸리더라도 전 세계에서 하마스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한 음성파일을 공개하며 지역 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미 연준의 긴축 중단 기대감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 선호가 작용한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 금 가격에도 제한적으로나마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최상목, ‘천재관료’ 수식어 코로나 시기 민생정책 주도

4일 윤석열 정부 제 2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상목(60) 후보자는 ‘천재관료’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정책 결정에 있어 판단력이 뛰어나고 일처리가 신속·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정부 출범초부터 신임 부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등 부처 내 큰 기대를 받아 왔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2011~2013년)에 이어 부총리 정책보좌관(2013~2014년)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후반부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재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또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등을 거쳐 농협대 총장직(2020~2022년)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3~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분과 간사를 맡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했다. 당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등 민생 관련 정책을 주도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호흡을 맞춰왔다.

그는 경기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개각이 단행된 직후 최 후보자를 정통 경제관료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물가·고용 등 당면한 경제·민생을 챙기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1면 ‘경제부총리 최상목’서 계속

중기부 등 6개 부처 개각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절반인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여성을 발탁했다. 이는 내각 2기 여성 비율을 늘리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 강정에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오영주 후보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2차관을 역임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왔다”면서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발전 전문가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한 연구업적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저명한 여성 경영학자로 경륜 있고 학계 내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며 “6·25 참전용사 딸이고, 독립유공자 손주며느리로 보훈에도 평소 남다른 식견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

“수입 요소 신속통관... 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산업부, 롯데정밀화학 등 민관 협력
“中 통관 지연, 정치적인 배경 없어”

중국 요소 통관 지연에 따라 제2의 요소수 대란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합동으로 대응회의를 열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국내 일부 주유소 요소수 가격이 리터당 5700원에 달하는 등 주유소별 가격차이가 최대 5배를 넘어서면서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이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섰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수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조달청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의 대중국 요소수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은 약 3개월분이 확보된 상태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KOTRA와 협

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소 통관 지연은 사실로 확인했으나,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관지연은 팩트로 확인했다”면서 “배경에 대해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다. 경제적인 이유다.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수 수요가 타이트해 통관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

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 위원회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요소수 생산·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승철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배터리, 脫중국 속도낸다 국산화 등 자체 공급망 강화

美 IRA 대응책 마련 분주
中 JV 지분율 조정 불가피
소재 국산화 업체 호재 전망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높인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해당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내년부터 미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만큼 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기업들이 IRA FEOC 세부규정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기업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기업(JV)을 FEOC로 간주하는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번 IRA FEOC는 중국 기업의 ‘직접 지배’에 대한 해석 범위도 비교적 넓게 적용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FEOC 기준에 해당되면 최대 7500달러인 IRA 전기차 보조금(최대 7500만 달러)을 받지 못한다. FEOC 기준은 부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핵심광물에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된다.



LG화학, SK온 등 국내 주요기업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새만금 전구체 생산 기지가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남북로 교차점 /뉴시스

국내 기업들은 IRA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계 최대 핵심 광물 보유국인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광물을 사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중국 기업과 JV를 설립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LG화학은 지난 4월 화유코발트와 함께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LFP 양극재 합작공장도 짓는다.

LG엔솔은 올해 초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업체 야화와 모로코에서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MOU를 맺었으며, 화유코발트와는 중국내 첫 한중 합

작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IRA FEOC 세부규정을 고려해 양사는 지분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의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GEM)와 전북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도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6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했다. CNGR 지분율이 80%에 육박해 북미 투자를 위해서는 양사의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IRA를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고민한 만큼 중국 기업의 지분율을 맞출 수 있다”면서도 “생산과정에서 중국 비율을 낮추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소재와 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단기간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중국과의 협력을 최소화하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국내 기업엔 이번 발표가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배터리 및 소재의 탈중국 기조 가운데 소재를 국산화한 업체에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며 LS와 고려아연의 경우 중국 자본이 개입하지 않은 배터리 밸류체인 구성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환율 1.8원 하락
코스피가 전 거래일(2505.01)보다 9.94포인트(0.40%) 오른 2514.95에 장을 마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27.24)보다 1.28포인트(0.15%) 상승한 828.52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05.8원)보다 1.8원 내린 1304.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임원부터 조직도까지 쇄신 예상

» 1면 ‘서든데스 경고 최태원’서 계속

특히 박정호 부회장은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ADT캡스 등 중요한 M&A를 이끌어오며 최태원 회장 ‘복심’으로 평가받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경영을 겸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조대식 부회장은 2020년부터 그룹 최고 결정 조직인 수펙스를 이끌어왔고, 장동현 부회장도 SK(株)가 투자전문 지주사로 혁신하는데 기여했다. 김준 부회장 역시 오랜 기간 에너지 사업을 맡아오며 배터리 등 미래 사업을 육성하는데 공헌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영 위기에서는 이같은 성과가 독이 됐다.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낸드사업부(현 솔리다임)가 시황 악화로 적자를 면치 못하며 SK하이닉스 실적을 끌어내린 악재로 작용한 가운데, 해외 배터리 투자로 그룹사 전체 채무 부담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SK월더스 상장 실패와 SK온 상장 지연 및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책임론도 대두된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 CEO 세미나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해진다. 일찌감치 ‘신상필벌’을 고민하고 있었던 셈이다.

◆ 누가 자리 대신하나

일각에서는 부회장단이 오랜 성공 경험을 쌓아온 만큼,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체할만한 경영자가 마땅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대식 부회장이다. 부회장단에 함께 물러나자고 설득하고 있다는 소문도 이같은 상황을 반증한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SK수펙스 의장으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창원 부회장이 아직은 승낙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SK 서린사옥 전경

최창원 부회장은 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 장남인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은 2000년 작고했고, 둘째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다.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디스커버리는 SK그룹과는 지분 관계를 거의 해결한 사실상 별개 지주사다. 최창원 부회장이 보통주 40.18%, 최태원 회장이 0.11%만 보유하고 있다. SK케미칼을 인적분할하며 지배구조를 개편했으며, 주요 계열사는 SK플라즈마와 SK가스, SK디앤디 등이다.

다만 SK디스커버리는 SK그룹과 끈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계열 분리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으며, 수펙스에도 꾸준히 참여해왔다.

최창원 부회장이 수펙스 의장으로 올라서면 SK그룹은 ‘사촌경영’ 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최창원 부회장이 올 초 SK디스커버리 계열사들과 사업을 논의하는 4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수펙스와는 성격이 다른 조직이라고 SK디스커버리 관계자는 강조했다. 수펙스 의장을 맡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 임원 대거 ‘물갈이’ 전망

재계에서는 이어서 젊은 경영자들이 SK그룹 주요 계열사를 맡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58세인 박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단독 대표로 올라서고, 59세인 박상규 SK엔무브 사장이 SK이노베이션을 총괄하는 등이다. 투자전문회사인 SK(株)가 계열사들과 중복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을 줄이고, 59세인 SK실트론 장용호 사장이 대표를 맡게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영자뿐 아니다. SK그룹에서는 올해 인사를 통해 임원이 대거 ‘물갈이’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일부 계열사에서는 임원 중 30%와 계약을 종료하고, 10%를 신규 임원으로 채우는 대대적인 개편도 점치고 있다. 전체 임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승진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조직도 역시 크게 바꾸려는 분위기다. 이미 여러 계열사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와 승진 조치를 끝낸 상황, 보직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7월 예정된 임원 인사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인사는 더욱 비밀리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전에는 인사 발표 전 일부 임원이 해임 통보를 받고 신변을 정리하는 등 움직임이 보였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그렇다할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김재용 기자 juk@

“변화하는 中 시장… 韓, 수출구조 개선해야”

소비·첨단산업 중심 성장구조 전환
“기술개발 통해 대외경쟁력 높여야”

중국이 부동산 중심의 투자에서 소비·첨단산업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존과 같은 대중(對中)수출 실적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며 중간재 수요가 줄고, 중국의 기술수준이 높아지며 자국에서 만드는 중간재로도 그 수요를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품 비중을 확대하고,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경쟁전망 핵심이슈: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에 따르면 중국은 부동산 부문 개발에서 벗어나 소비와 첨단산업으로 성장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 中 성장구조 전환

중국이 성장구조를 전환한 이유는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과잉돼 부채가 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기준 중국의 자가주택보유율은 90% 수준으로, 미분양 규모는 전국적으로 720만채에 이른다. 주

택가격은 누군가 높은 가격으로 사줄 때 상승할 수 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이들(수요)이 줄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 투자금액의 부실가능성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감소)을 추진하고, 성장구조를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섬유·의류·컴퓨터 등 기존산업은 축소하고, 전기차·이차전지·태양광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정책지원을 강화했다.

현재 중국은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한 상태다. 올해 9월까지 자동차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이 349만대, 일본이 319만대, 독일이 244만대로 중국이 가장 많다. 이차전지 및 태양광의 글로벌 점유율도 각각 62.9%, 80~95%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 韓, 중국 특수 없어… 소비재 수출 비중 확대

이날 한은은 중국이 성장구조를 전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 수출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며 수입유발 효과가 낮아지고, 기술개발 등으로 중간재 수입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기 때

이다.

김보성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은 주변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대중수출이 과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최종수요가 자국내 부가가치 유발비중은 2018년 86.6%에서 2020년 87.3%로 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최종수요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비중은 같은 1.2%에서 1.0%로 하락했다. 지금까지 중국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중국은 부동산 등 과잉투자가 축소되면서, 소비시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기업 “불확실성 지속에 투자계획 미정”… 규제·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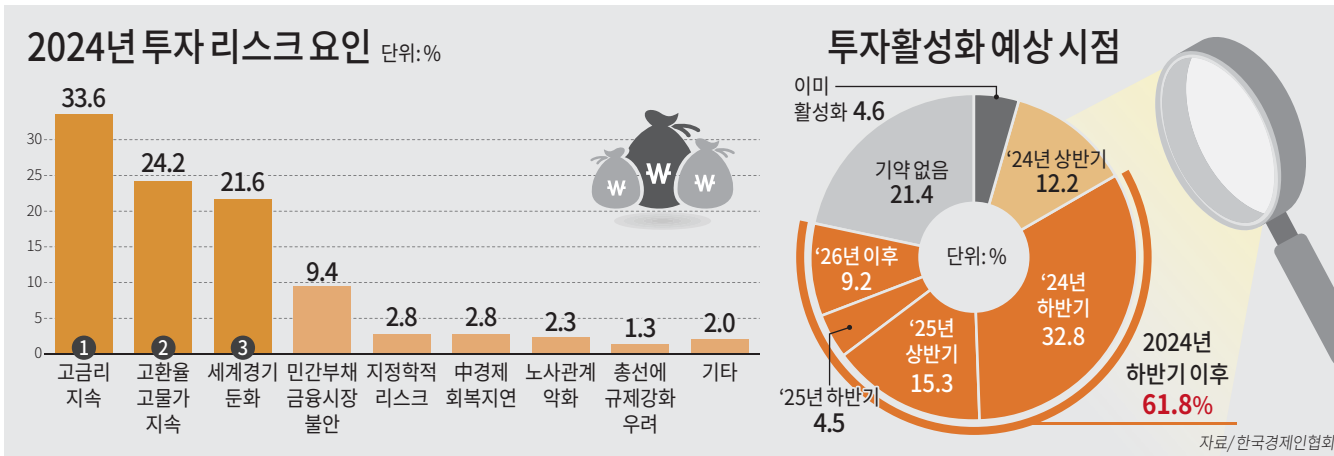
한경협,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
50% “투자 미정”, 5% “계획 없음”
계획수립 28.8% “올해보다 확대”
“금융·세제 등 지원책 마련 시급”

글로벌 위기 속대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함께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 131개사 중 49.7%는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해(38%)보다 크게 늘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곳도 5.3%나 됐다.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가 10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지난 7월 발표치(2.4%)보다 축소 조정된 상태, 기



업들은 ‘불투명한 경제전망(31.6%)’과 ‘원가 상승 리스크 확대(26.6%)’, ‘금융 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14.3%)’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45%) 중에서는 28.8%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13.5%)보다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61%였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0.2%로 전년(19.2%)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한경협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쟁력 제고와 미래 시장 변화를 위

한 투자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 중 37.3%가 ‘성장동력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불황기 적극 투자로 경쟁력 확보’도 7.8%가 있었다. 합치면 45.1%에 달한다. 경제 전망 양호(25.5%)라는 응답도 많았다. 업황 개선 기대감(15.7%)도 적지 않았다.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32.8%가 이렇게 예측했다.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은 12.2%로 45%가 내년 중으로 투자 확대

본격화를 점쳤다.

다만 경기 침체는 투자 리스크로 여전히 유효했다. 기업들은 투자에 부정적 영향으로 ‘고금리 지속’을 33.6%,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24.2%, ‘글로벌 경기 둔화’를 21.6% 문제로 들었다. 민간부채 위험(9.4%)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경협은 “물가가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은의 목표물가 수준인 2%를 상회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필요로 했다. 투자에 어려움으로 ‘시설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28.8%)’, ‘ESG 규제와 관련 지원 부족(18.1%)’, ‘신산업 진입 규제(14%)’ 등을 애로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및 세제지원 강화(22.6%)’ 등 자금 사정 개선대책과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 ‘금융지원 확대(12.7%)’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실적 부진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은 우리경제에 고무적 조짐으로 해석된다.”라며, “투자심리를 확실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韓수출 회복세 지속 전망”

한은, 수출 개선흐름·지속가능성 평가
“고금리 지속 땀 철강·기계 등
대중 수출회복 지연 가능성 ↑”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4개월간 우리나라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됐다. 실질적으로 수출 물량과 단가가 상승하며 수출 회복세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간한 ‘최근 수출 개선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부진하던 한국 수출은 올해 2분기부터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월과 11월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 7.8% 증가했다.

다만 수출증가 속도는 과거 글로벌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최근 수출 개선 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부터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금융위기 등에 비하면 더딘 상황이다. 수출단가와 물량을 구분해서 보면 지난 10월 수출단가는 화공품이 지난해 평균보다 89% 낮고, 석유제품 90%, 철강 85%, 반도체 67% 낮다.

한은 관계자는 “자동차와 함께 반도체

체는 인공지능(AI) 수요가 확대되고,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감산이 더해지며 물량과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최종재의 수출은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은 1분기 71억달러, 2분기 77억달러, 3분기 88억달러에서 10월 91억달러, 11월 97억달러로 늘어나는 반면 IT최종재의 월평균 수출액은 1분기 19억달러, 2분기 18억달러, 3분기 20억달러, 10월과 11월에 25억달러씩을 기록했다. 증가폭이 미약한 수준이다.

이날 한은은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IT최종재의 수출도 회복되며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통상 39~43개월 내외인데 이를 고려하면 내년 교체주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회복기를 보면 반도체 수출은 저점에서 평균 약 28개월 동안 상승하며 수출 회복을 이끌었다”며 “수출과 성장세 회복의 주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AI, 친환경 전환 등 신성장 산업 관련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투자 확대도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등 수출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수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고금리에 소비가 둔화되지만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향후 대미 수출은 양호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부진에 산업구조 고도화로 자금률이 높아져 대중 수출은 과거와 같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 대신 아세안5와 인도가 생산거점으로 부상해 반도체·화공품·석유제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구재를 포함한 재화의 소비 회복이 더딘 점은 우리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국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지속할 경우 철강·기계 등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보험사, 3분기 누적 순익 11.4兆… 전년 동기비 47.2% ↑

2023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올해 보험사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보장성 보험 등의 판매가 늘었고, 회계제도 변경도 영향을 미쳤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53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1조 4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다.

22개 생명보험사들의 순이익은 4조 3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4% 늘었다. 보험손익은 보장성 보험 판매 호조와 회계제도 변경으로 개선됐지만 금

리 상승에 투자손익은 악화됐다.

31개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은 7조 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했다. 역시 견조한 자동차보험 실적과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손익이 개선됐지만 금리 상승과 환율 하락에 투자손익은 악화됐다.

연초 이후 9월까지 수입보험료는 162조31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76조4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비중이 늘었지만 금리 변동폭 확대

와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저축성과 변액보험에서는 줄었다.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85조85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장기·자동차·일반보험 등이 모두 크게 늘었으며, 특히 퇴직연금의 수입보험료가 영업 확대에 크게 증가했다.

총자산이익률(ROA)은 1.32%로 전년 동기 대비 0.54%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06%로 전년 동기 대비 0.39%p 하락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각각 1153조4000억원, 168조1000억

〈총자산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 현황〉

(단위:%, %p)

구분		22년 1~9월(A)	23년 1~9월(B)	증감(B-A)
총자산이익률 (ROA)	생명보험회사	0.41	0.71	0.30
	손해보험회사	1.75	2.91	1.16
	전체	0.78	1.32	0.54
자기자본이익률 (ROE)	생명보험회사	5.84	5.49	△0.35
	손해보험회사	15.21	15.27	0.06
	전체	9.45	9.06	△0.39*

*당기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순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금융감독원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증가와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4분기에는 손익과 재무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며 “재무건전성 취약이 우

려되는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영업, 대체투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HD현대스포츠
울산현대축구단
ULSAN HYUNDAI FOOTBALL CLUB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2023년 울산현대가 또 한번
K리그1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이제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새 역사를 써내려갈 그 길을
팬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울산현대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린다. 우리 승리 향해 달린다"

- 울산현대 서포터즈 처용전사 응원가 <끝까지 달린다> 중 -

| 울산현대 K리그1 2년 연속 우승 |



하나1Q 원큐 | K LEAGUE 1 2023 4K

CHAMPIONS
2023



野 “중대재해법 유예, 사과·구체방안 등 4가지 조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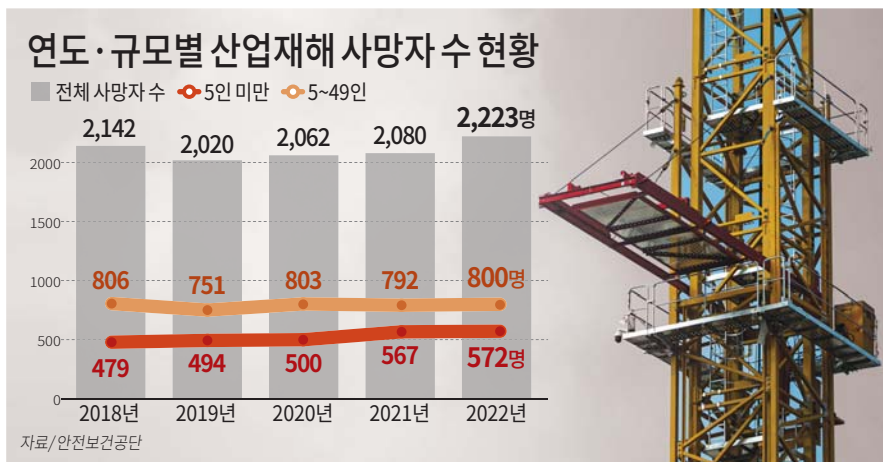
홍익표 “당정, 여론 호도… 유감 유예 논의 조건으로 3가지 원칙과 중소기업조합법 개정안 통과 제언”

경영계, 경영상 어려움 호소 노동계, 적용 유예 강력 반발

경제계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2년 유예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고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



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됐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관리 투자 여력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4년까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행돼 관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가 처벌하는 판결도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

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7일 법 적용 2년 유예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면 확대를 늦추는 것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라는 법 취지와 반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발표한 연도별 사업자 규모별 사망자 수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사고사망자+질병사망자) 사망자 수는 8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으로

법 시행인 2022년엔 오히려 늘어났다.

정치권에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빌려 민주당도 법 적용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1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법 적용 확대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 ▲유예 시, 중대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2년 후 법을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는 정부와 경제계 입장이 있으면 유연하게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발언 이후 언론들이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당정도 관련 협의를 하면서 법을 적극 추진한 민주당이 도리어 법 적용 전면 확대를 늦추는 데 일조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첫째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둘째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 준비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세번째 2년 유예 이후에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지는 제안을 했다.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없다”며 조건을 추가로 걸며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가 추가조건을 내걸면서 법 적용 2년 유예는 또 다른 정치 쟁점이 되어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 적용 유예 조건을 말씀하셨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즉각 “개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고, 민주노총은 5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혁신위 안전, 보고 안 돼” vs “요청 없었다?… 사실 아냐”

(국민의힘 지도부)

(인요한 혁신위원회)

희생 혁신위 안전, 최고위 상정 여부 격돌
혁신위, 오는 7일 다시 보고 예정
일각선 ‘비대위 전환’ 요구 목소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일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합치 출마 또는 불출마(희생) 혁신안의 최고위원회 상정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당초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중진·친윤계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최후 통첩을 날리며 이날까지 답변을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혁신위 안전이 보고 안 됐다”고 했고, 혁신위는 “혁신위가 최고위에 안전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상정을 예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후 취재진들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위 안전이 보고 안 됐다”며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 혁신위 안전이 왜 안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안전 보고 요청이 없었다는 사무총장의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될 것이라고 알려진 혁신안이 보고조차 안

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가 (불출마 혁신안을) 어떤 형태로 보고할지 정리가 돼서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렵게 모시고 와서 활동하는 혁신위인 만큼, 혁신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자는 의견이 공유되고 대부분 동의했다”면서도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건 본연의 역할과 범주,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중진·친윤계 등의 희생은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거절한 셈이다.

반면 혁신위는 최고위에 상정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혁신위가 최고위원회에 안전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건 사

실이 아니다”라며 “다시 목요일(7일) 최고위에 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 혁신위원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이후의 절차는 당 기획조정국(기조국)이 최고위원회 보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어제(3일) 기조국에 오늘 최고위에 안전이 상정되는지, 누가 보고하는지를 의논하니, 향후 혁신위 안전 모두를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안전을 모두 모아서 상정하라는 이야기는 혁신위의 조기 해산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발표한 혁신안을 한꺼번에 보고한다는 것은 활동 종료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식 보고를 하기 위한 요청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최종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정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당의 모든 기구들은 당헌 당규의 원칙 아래 돌아간다. 혁신위라고 해서 예외적인 조직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도부는)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을 따르고 존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저희도 정리된 것이 오면 총선 기획단이나 공천관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혁신위의 안전이 최고위에 보고되면, 총선기획단이나 공천위에 그 내용이 넘어가 반영되는 ‘통상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총장은 “어떤 언론에선 ‘혁신위 제안 중에 하나밖에 안 받아줬다’고 말하지만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희생’ 혁신안을 최고위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혁신위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대위 전환’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syj@

與 뉴시티 특위, 이번엔 광주로… “서울·부산·광주 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강기정 “수평적 조성이 바람직”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 위원장이 4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메가시티의 축으로 서울·부산·광주를 새롭게 제시했다.

‘서울 메가시티’로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남권 메가시티’(부산·울산·경남)와 ‘서남권 메가시티’(광주·전남)도 띄워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겠

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이슈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 참석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서울·부산·광주를 3축으로 지방 소멸·저출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 탈출을 위해 메가시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다소 늦었지만 젊은이들이 지방 도시에 살며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광주가 국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세계적 경쟁력뿐 아니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만 특별시로 볼 것이 아니라 광주는 문화특별시,

부산은 해양특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부산·광주를 3축으로 한 메가시티 구상엔 공감하면서도, 메가시티를 조성할 경우 주변을 흡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부산 축 균형 발전을 말씀하시며 아쉬웠지만 뉴시티 특위에서 부족분을 메꾸셨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중심에서 전국 3축 다극화가 된 것처럼, 광주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을 흡수하면 주변이 반발할 것”이라면서 “전주권·새만금권·광양권·목포권·광주권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초광역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론회’에서는 국토 서남권의 절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서예진 기자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은행은 저에게 대출상담 과정에서
인망함과 좌절감을 가져다 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마음을 열게 해준 분이
'화성남양지점 홍태준 부지점장님' 이십니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딸의 병간호로
장사를 그만두고 지쳐 있는 저에게
'기운 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납니다.
살면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듣거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셔서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과 희망을 주세요.”

편지를 보내주신 남성은 고객님 감사합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따님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하는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눈앞 사기 근절 통해 보험료 절감 기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정무위 통과
여야 이견 없어 연내 본회 넘을 듯

관련종사자 사기적발엔 가중처벌
가담한 병·의원, 대리점 등 공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 들고, 소비자들의 보험료도 절감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 제10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국회 첫 관문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를 벌일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다. 직접적인 사기에 가담한 병·의원,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고 보험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 없이 부당편취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행위 역시 금지토록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사기 대응에 역부족이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115억원) 보다 약 21.8%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2021년(9만7629명) 대비 약 5.2%(5050명) 증가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고도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약 6000억원의 보

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보험 1793억원 ▲실손외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 2072억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온 제도적 보완책이다. 보험업계는 여야 이견이 특별히 없는 사안인 만큼 올해 내 국회 문턱 넘을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 논의는 국회 일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회의가 잡혀야 한다”며 “그동안 일정에서 밀린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계속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으므로 논의만 이뤄진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JB금융, 2년 연속 ‘ESG우수기업’

KCGS 올해 총 1049개 기업 평가
JB금융, 국내 금융지주 유일 선정

JB금융그룹이 2년 연속 한국ESG기준원(KCGS)이 선정하는 ‘ESG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ESG기술원은 지난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 수준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1049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JB금융지주는 2023년 ESG 평가 결과 환경 부문에서 A+, 사회 부문에서 A, 지배구조 부문에서 A, 통합등급 A 등급을 받아 국내 금융지주가운데 유일하게 ESG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JB금융지주는 지난 2021년 6월 ESG 경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발표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가는 JB금융’이라는 ESG 미션을 선포했다. 이사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주 및 계열사 주요 임원과 ESG실무진이 참여한 ‘ESG 협의회’를 통해 그룹 내에서 전사적인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국내 금융회사 중 두번째로 SBTi(과학 기반 감축



JB금융지주 본점. /JB금융지주

목표 이니셔티브)로부터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해 글로벌 수준의 탄소중립 이행 프로세스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지역사회 및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기 위한 사회책임경영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룹 봉사단을 창단해 ▲지역아동센터 개선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자립준비 청년 지원 등 3가지 그룹 핵심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 중이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4일 “이번 우수기업 선정을 계기로 ESG 우수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진정성 있고 고도화된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감원, 지역사회와 금융사기 예방 나선다

세종시·한화손보와 업무협약 체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홍보활동

금융감독원은 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한화손해보험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나재범 한화손보 대표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세종시의 공공시설 및 각종 공식행사 등을 활용해 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세종시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홍보를 위한 장소 제공 등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보험제

도 및 출산장려 시술비 지원사업도 홍보할 계획이다.

한화손보는 세종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 지원 및 출산 장려 시술 비용 보조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사기 예방과 함께 금융회사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범죄, 저출산 등을 금융권이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올해 청약접수 3건 중 1건은 ‘서울 지역’

서울 신규단지 33만건 청약 접수
내년 물량 최저치로 경쟁과열 예상

올해 11월까지 전국에서 103만건 이상의 청약이 접수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청약 접수 건수가 30% 이상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선별청약 현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4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청약 신청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03만99건(특별공급 13만2676건, 일반공급 89만7423건)의 민간분양 아파트의 청약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28만7059건) 대비 20%(25만6960건) 줄어든 수치다.

올해 아파트 청약은 서울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서울 신규분양 단지에는 33만775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이는 전국 청약 접수건수 중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동기(9만470건) 대비 약 3.7배(24만305건)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 올해 청약자 2만명 이상을 모은 단지 13개 중 6개는 서울 아파트가 차지했다. 지난 8월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라그라데’는 4만7674명이 청약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4만6569명)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정’(3만9841명)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라이프’(2만9201명) ▲‘영등포자이 디그니티’(2만4473명) ▲‘휘경자이 디센시아’(2만2590명) 순이었다.

경기·인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은 지난해 대비 8821건 감소한 29만4108건이 접수돼 서울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인천의 경우 15만3791에서 4만7086건으로 69.4%(10만6705건) 감소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분양 물량은 늘었지만, 청약에서 11만3720건이나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경북 지역은 물량이 5분의 1도막이 나면서 청약도 11만957건 감소했다. 경남 지역은 올해 청약 접수를 받은 13개 단지 중 3개 단지에서 청약자 ‘제로(0)’를 기록했다. 대구·울산·제주에서는 올해 청약 접수를 받은 모든 단지가 공급세

대를 채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입주 물량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등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공급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서울 청약시장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백재훈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대규모 분양예정지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가 분양 개시를 앞두고 있다”면서 “적정 분양가를 고려한 선별청약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 가격 수준에 따라 흥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

“ATM서 얼굴 정보로 출금·이체 하세요”

신한은행, ‘얼굴 인증 서비스’ 시행
솔 앱이나 영업점서 얼굴정보 등록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얼굴정보 인증을 통해 ATM에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얼굴 인증 기반 ATM 출금 서비스’는 ATM에서 카드, 통장 등이 없어도 얼굴정보 인증을 통해 출금 및 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솔(SOL) 앱이나 영업점에서 얼굴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얼굴 인증 기반 ATM 출금 서비스를 ATM중 300여대에 우선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바이오 인증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금융권 바이오 인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향후 생체 인증 서비스 적용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中 공급과잉에 정부 지원정책 축소… 태양광 산업 ‘비상’

주요 제품값 하락에 수익성 악화
중국산 가성비 측면 경쟁력 부족

소형태양광 고정가격제 폐지 등
정부지원도 줄어 업계 생산 감축
한화큐셀 음성공장 가동 전면중단



한화큐셀 진천공장 전경

/한화큐셀

태양광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중국 발 공급과잉으로 말미암은 판가 하락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축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4일 한국수출입은행의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5GW(기가와트)를 정점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2.5~3.0GW 내에서 수요가 정체될 전망이다.

이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한화큐셀의 국내 모듈 생산 능력은 6.2GW에서 2.7GW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하는 등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산업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진두지휘해 왔던 부문이라 경영능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에스에너지, 에스디엔, 신성이엔지, 한솔테크닉스 등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을 50%에서 최대 90%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급격히 위축된 데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폐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를 없앤 데 이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RPS) 비율도 낮췄다.

아울러 태양광 주요 제품가격 하락하며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210mm 단결정 태양전지 가격은 W(와트)당 0.09달러, 210m

m 단결정 모듈 가격은 W당 0.18달러로 전년 고점대비 각각 45%, 33.3% 하락했다.

반면 중국 태양광 수요는 급증했다. 제품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지난 2022년 대비 설치비가 대폭 줄어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월까지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0% 증가한 48GW를 기록했다. 중국산 제품을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국내 태양광 제품들의 경쟁력은 중국산 대비 열세에 놓여 있다. 중국산 대비 기술 및 가격 측면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모듈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태양광 산업이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실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찾아가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제주항공, 두번째 화물 전용기 도입… 사업 다각화 박차

업계 최초 도입 이어 1년6개월 만
일본·베트남 지역 신규진입 검토

제주항공이 두 번째 화물 전용기를 도입하며 안정적인 화물운송 사업 기반 구축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한다.

4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초로 화물전용기를 도입한 데 이어 1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화물전용기를 도입했다. 1, 2호기는 모두 B737-800BCF(Boeing Converted Freighter)로 제주항공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항공기

와 같은 기종이다. 보유 중인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화물 전용기 운용을 통해 화물기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단 운영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2년 6월 첫 번째 화물 전용기 도입 이후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에 주 3회, 인천-엔타이 노선에 주 6회, 인천-하노이 노선에 주 6회 각각 운영해 왔다. 더불어 지난 9월까지 전자상거래 물품, 의류와 기계부품 등 약 2만t을 수송했다.

이번에 도입한 2호기는 기존 운용 중인 노선 증편과 함께 인천-오사카, 호찌민 등 일본, 베트남 지역 신규 진입을

검토 중이다.

제주항공은 화물기 도입 이후 화물 전용기를 통한 화물 수송량을 지속 늘려 오고 있다. 화물 전용기 도입을 시작한 지난해 3분기에는 2925t을 수송하는데 그쳤으나 올해 3분기에는 4690t을 수송해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6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해 온 B737-800NG 기종의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 신규 사업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전자 상거래 수요를 선점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인 리튬이온배터리, 의약품 등과 반도체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목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화물 2호기 도입을 통해 노선 확장은 물론 비정상 상황에도 유연히 대처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통해 동북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물 운송사업자로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아이오닉6,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싹쓸이

현대차그룹, 유럽서 수상 질주
18개 부문 중 5개 부문 상 차지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에서 계속되는 수상으로 낭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스코틀랜드 자동차기자협회(이하 ASMW)가 주관하는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이하 SCOTY)’에서 아이오닉6가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총 18개 수상 부문 가운데 5개 부문의 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5개의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또 수상한 5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수상해 전동화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 아이오닉6는 스코틀랜드 최고의 차에 시상하는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스코틀랜드 최고의 자동차 기자

단 및 평가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올해의 차’ 선정에서 아이오닉6는 “단 하나의 눈에 띄는 차”라는 극찬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아이오닉6는 매끈한 외관에서부터 스타일리시한 실내 등 뛰어난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외에 동급 최고의 성능, 실용성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차”라고 평가했다.

아이오닉6는 ‘올해의 차’ 외에도 ‘대형 EV(Large EV)’ 부문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아이오닉6는 ‘운전자 친화적인 차’라는 평가를 받으며 치열한 대형 EV 부문에서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최고의 대형 EV’로 뽑힌 아이오닉6에 대해 운전자 친화적인 기술과 낮은 유지비용을 높게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에어로, 폴란드에 K9 등 추가 수출

3.4조 규모 ‘2차 실행계약’ 체결
종합군수지원 패키지 공급 등 협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K9 자주포 추가 수출에 성공하면서 연말 수주 짝꿍을 터트렸다. 이번 추가 수출 물량은 총 152문으로, 26억달러(약 3조 4474억원) 규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26억달러 규모의 ‘2차 실행계약(Executive Contract)’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련장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K9 212대, 11월에는 천무 218대를 1차로 계약했다. 이번 계약은 K9의 남은 계약 물량(460대) 중 일부인 152문을 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A1 자주포.

용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자주포 및 자주포용 155mm 탄약과 K9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군수지원패키지를 공급하고,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의 남은 계약 물량을 모두 마무리해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세계 최고속도 5G급 PoE 케이블 출시

LS전선이 고가 광케이블을 대체할 제품을 새로 내놓으며 시장을 흔든다.

LS전선은 4일 5G급 PoE 케이블 ‘심플와이드 2.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최장 180m 거리에 5Gbps 속도 통신과 100W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종전보다 각각 5배, 3배 이상 개선했다.

이같은 통신 속도는 IP카메라와 CCTV, 사물인터넷(IoT) 등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과 데이터 백업도 가능한 수준이다. 전력량도 고성능 CCTV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다채널 카메라와 고화질 CCTV에서 주로 사용하던 광케이블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케이블보다 가격이 절반 가까이 저렴하며, 전원도 함께 공급할 수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광케이블 대비 설치 비용을 40~50% 절감할 수 있으며, 전원 케이블과 콘센트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지하철, 공원, 학교, 운동경기장, 스마트빌딩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볼보 EX30

볼보차 ‘EX30’

美과폴러 사이언스 ‘최고 혁신 50’ 선정

볼보 EX30이 전기차 보급을 이끌 최고 혁신으로 선정됐다.

볼보자동차는 미국과폴러 사이언스 ‘베스트 오브 왓츠 뉴 어워드’에서 2023년 최고의 혁신 50가지에 EX30도 이름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베스트 오브 왓츠 뉴 어워드는 전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EX30은 수천개 제품과 기술과 경쟁해 자동차 부문에서 상위 50개에 올랐다. 안전을 중시하는 볼보 명성에 재생 가능한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대로 전기차 확대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다.

EX30은 볼보의 컴팩트 순수 전기 SUV로, 국내 기준 5000만원 안팎의 가격에도 WLTP 기준 최대 475km 주행 거리를 확보하는 등 성능과 프리미엄 디자인도 갖췄다.

한편 EX30은 2024 유럽 올해의 차와 2024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2024 월드 카어워드 ‘세계 올해의 차’ 등에 최종 후보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김재용 기자

배임·폭로, 내부 곪은 ‘카카오’… 노조도 팻말 시위 나섰다

김정호 경영총괄 스스로 징계 요청
기술탈취 등 소상공인 갑질 의혹
노조, 본사 앞서 첫 피켓팅 시위
카카오에 경영쇄신 등 촉구 목소리

카카오 경영진의 경영쇄신 노력에도 그룹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김정호 카카오 CA협업체 경영지원총괄의 내부 폭로전은 일단락됐지만, 각종 내부 문제가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핵심 경영진은 물론 김범수 창업자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놓인 데 이어 계열사들도 ‘분식 회계’와 ‘기술 탈취’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노조까지 시위에 나서며 내홍 사태가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때 3위를 지키던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10위 밖으로 미끄러졌다.

◆그룹 자체적으로 ‘부실 인정’… 경영진 배임부터 내부 폭로까지

4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카카오엔터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말 카카오그룹 판교 아지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기존에 알려졌던 시세조종 혐의 외에 배임 혐의 관련 증거물도 압수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준호 카카오 투자전략본부장 등이 바람픽처스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2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이 본부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바람픽처스 제작사에 투자했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23일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본부장은 200억원 들여 증거했고, 총 400억원을 카카오엠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처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이 부문장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문장은 카카오가 SM 인수 당시 시세조종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상태다.

그룹의 핵심 경영진까지 내부 문제를 폭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김정호 카카오 CA협업체 경영지원총괄은 안산데이터센터 시공사 선정, 서울아레나 비리 의혹, 제주도 유희부지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비리 혐의 내용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폭로했다.



카카오 노조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피켓팅 시위를 열고 사측에 인적 및 경영쇄신을 촉구했다.

김 총괄은 카카오가 안산데이터센터와 ‘서울아레나’ 프로젝트를 공개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추진했고, 제주도 프로젝트 역시 내부 결재나 합의 없이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그는 법인 골프회원권, IDC/공연장 비리, 경영진에 편중된 보상 등 카카오 내부문제를 폭로했다. 그러나 김 총괄이 지목한 카카오 내부 임원과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이익을 제기하는 등 극단적 내분 사태로 확대됐다.

다만, 김정호 총괄이 스스로 사측에 징계를 요청하고 공식 사과하면서 폭로전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김정호 총괄은 지난 3일 카카오 내부망에 “저는 스스로 윤리 위원회에 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요청했다”며 “100대0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내부 원칙 중 ‘100대0’ 원칙은 카카오 내부에서는 모든 정보를 100% 공유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절대

적으로 보안을 유지하자는 뜻이다.

◆카카오 10년만 12만배 성장… 문어발식 확장 ‘발목’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기술탈취와 소상공인 ‘갑질’ 의혹에도 휩싸였다.

카카오는 단 10년 만에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12만배 성장했다. 이는 빠른 사업 확장 덕분이었는데, 메시저는 물론 택시, 음악, 송금, 선물하기, 대리운전, 꽃배달과 퀵서비스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넓히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해 수익을 올렸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카카오의 독과점 행태와 수수료 착취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카카오택시 선물하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카카오택시는 경쟁사에 승객 호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

카카오택시 운전자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택시업계와 타협 중에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정책의 전면 개편과 수수료 3% 이하의 신규 가맹서비스 추진 사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계속 협의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 탈취 논란도 현재 진행 중이다. 카카오의 골프 사업 계열사 카카오VX는 기술탈취 의혹을 받고 있고, 카카오헬스케어는 경쟁사 닥터다이어리 서비스 도용 의혹이 제기된 후 현재는 중재된 상태다. 다만, 카카오헬스케어는 서비스 출시를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등 사업 일정을 조정하고 향후 협업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첫 시위’ 나선 노조, 준신회에 조사 맡겨야

그룹의 내부 문제가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임직원들 사이에선 혁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4일 오전 인적쇄신과 직원의 경영쇄신 활동 참여 등을 요구하는 첫 시위에 나섰다. 이날 노조는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이 폭로한 일련의 경영진 비위행위에 대해 외부독립기구인 준법과신회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흥은택 카카오 대표가 각종 의혹에 대해 공동체 준법경영실과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폭로된 경영진의 특혜와 비위행위를 독립기구인 준법신회위에 조사를 요청해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크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노조는 요구했다.

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한 경영진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이끌고 있는 경영쇄신 위원회에 일반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카카오의 신뢰도가 추락하면 그룹의 주가 또한 바닥을 치고 있다. 한 때 17만원이 넘던 카카오 주가. 2년만에 3만원대로도 떨어졌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시가총액 3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14위까지 밀려났다. 또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 AI 기술 활용 첨단·융합 솔루션 선보

‘북미영상의학회 2023’ 참가 세계 최초 이동형 CT도 공개

삼성이 북미에서 영상의학 트렌드 리더십을 자랑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 뉴로로지카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3에 참가했다. 삼성은 이번 행사에서 AI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등 기술을 영상학과 접목시켜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일반 카메라 기술을 디지털 엑스레이에 도입해 촬영 편의성을 높인 AI 촬영보조 솔루션 ‘에이스 GC85A’의 비전 어시스트 기능 시연은 유럽 실사용 고객을 초빙하며 효과적인 성능을 입증했다.

세계 최초 이동형 CT 기기도 처음 공



RSNA 삼성 부스.

개했다.반도체 활용 신기술인광자계수검출기(PCD)를 적용했다. 자체 심포지엄에서 정원을 30% 초과하며 관심을 입증했다. 아울러 디지털 엑스레이용 AI 진단보조기능인 ‘온디바이스 CAD’와 ‘에스 인핸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관상동맥석회화검출연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그 밖에 모바일 환경에서 오래 활용 가능한 디지털 엑스레이 ‘에이스 GM

85’를 경험하는 모바일존을 구성해 실감나는 체험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부문에서는 실시간 신경 추적 기능 ‘너브트랙’ 등 보조 기능과 개발 완료 단계인 ‘장 초음파’와 간진단 기능도 화제를 모았다. QLED TV와 빔프로젝터 프리스타일 등을 조합하며 다양한 가전과 활용성도 선보였다. 소아 전용 ‘L3-22 프로브’도 있었다.

유규태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겸 삼성메디슨 전라매케팅팀장(부사장)은 “삼성은 AI를 접목한 영상 진단 장비와 앞선 IT기술을 활용해 영상 화질 개선과 함께 사용의 편의성과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며 “진단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글로벌 의료진단 업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

SKT, T우주 마케팅으로 韓광고대상 은상

“T우주,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것”

SK텔레콤은 국내 광고 업계 시상식인 ‘2023년 대한민국광고대상’

퍼포먼스 마케팅 분야에서 T우주 마케팅으로 은상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T우주 퍼포먼스 마케팅에

팅에 대해 “데이터 기반한 타겟팅 고도화와 개인화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우주패스 가입에 대한 고려도를 높이고 필요한 상품을 제안해 상품 가입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12월 이용자 600만명에 거래액 3배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연간 1억 이상 수익 올리는 채널 多

네이버의 유료 콘텐츠 플랫폼인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가오픈플랫폼으로 전환한 이후 1년 10개월여만에 600만에 달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MAU)를 확보했다. 연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채널이 수십 개에 달할 정도다.

네이버는 올해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의 채널 수와 유료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13만개 이상의 새로운 콘텐츠가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창작자들의 수익성도 향상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올해 월 100만원 이상 구

준히 콘텐츠를 판매하는 채널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콘텐츠 판매액이 1억 이상인 채널들도 수십 개에 달했다. 전년 대비 전체 결제 건수는 2배, 거래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프리미엄콘텐츠는 광고 수익 의존도가 높았던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수익 창구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과 AI(인공지능) 기술 도구를 제공해 콘텐츠 창작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거나 자동 생성된 텍스트 자막을 콘텐츠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남영 기자

한화오션, 친환경 기술 인증 대거 획득

프랑스 BV선급서 총 3건 승인

한화오션(이) 이산화탄소 관련 기술에 대한 선급 인증을 대거 획득했다.

한화오션은 세계 4대 선급중 하나인 프랑스 BV선급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이중화물(이산화탄소·암모니아) 운반선의 화물운영시스템 ▲액체이산화탄소 운반선(LCO2운반선)의 재액화시

스템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스템 등 총 3건의 기본인증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한화오션에서 획득한 이산화탄소-암모니아 이중화물 운반선의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의 운송이 가능한 신개념 선박으로, 운항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선박 기술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지역별 선착순
특허공법으로 **즉석**에서 제작 완성하는
AMAS장비 무상지원



내 발의 형태와 아치/족궁에 딱 맞추는

AMAS
즉석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쑥~쑥
AMAS 즉석
어린이성장깔창



발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제는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통증**에서 해방되세요!!!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네카오, 주가 상승궤도 진입… AI 시장 활약서 전망 엇갈려

지난달 주가 각 11%·33.5% 급등
기관·外人 순매수… 개미는 순매도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두각 기대
카카오 정치권 규제·견제 우려와
내년 연결 영업이익 34% 증가 기대

상반기 내내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국민주’ 네카오(네이버·카카오)가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달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임과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성장주’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지만,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지난달에만 10.9%, 33.5% 급등했다. 지난달 1일 네이버의 종가는 18만7700원이었지만 지난달 말 20만원을 넘겼으며, 카카오는 3만7600



네이버·카카오 로고.

/각사

원에서 5만원 선까지 뛰어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날도 2.18%, 2.21%씩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다.

두 종목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기관·외국인은 지난달에만 네이버를 1150억원(203억원+947억원), 카카오는 3128억원(2066억원+1062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각각 1179억원, 3048억원씩 순매도하면서 반대되는 투자 심리를 보였다.

게다가 네카오는 금리 추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긴축 종료에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진구 키움증

권 연구원은 “금리 등 매크로 이슈 완화에 따라 내년 광고 경기의 의미 있는 회복과 커머스 솔루션 사업 확대 등에 따른 타라인 성장 및 올해 비용 컨트롤 기조가 내년에 온기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성장과 마진율 개선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네이버는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 인공지능(AI)의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챗GPT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으로 인한 혼풍을 맞이할 때, 네카오는 AI 수혜주에서 소외되며 오히려 역진한 바 있다.

지난 8월 네이버의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한 이후에도 미미한 반응과 함께 주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증권가에서는 AI 시장에서의 네이버 활약을 기대하며 업계 탐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키움증권을 비롯한 6개사가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30만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국내에서도 2024년 기업 간 거래(B2B) 생성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기업 중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업체는 네이버”라며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레퍼런스로 확보해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의 기업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카카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

리고 있다. 오 연구원은 “카카오는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서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이슈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정치권의 규제와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4년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높아진 데 반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아직 카카오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카카오의 상장 자회사를 제외한 연결 영업이익은 2024년 5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카카오가 호황기였던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44兆 대규모 수주에도… 증권가 ‘싸늘’

에코프로비엠

삼성SDI와 NCA 양극재 공급계약
과도한 기업가치… 해외비 PER 4배 ↑

에코프로비엠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도 증권가 반응이 냉담하다. 이미 주가 수익비율(PER)이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도 100배에 달할 만큼 주가가 먼저 급등했던 탓이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적정주가 대부분이 현재 주가보다 낮은 상황이다.

4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대비 15.36% 오른 3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일 삼성SDI와 향후 5년간 43조9000억원의 NCA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적용 환율만 1306원으로 밝혔고, 판매단가는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물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양극재 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잡는가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진다”며 “이번 계약으로 인한 공급 물량을 70만~80만톤으로 추

정하면 연간 14~16만톤 수준으로 실적 추정치 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기존과 같이 ‘비중 축소’, 목표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대폭 낮은 20만원을 유지했다.

한 연구원은 “대규모 계약이 단기 주가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성장 계획에 이미 설정된 그 이상이 아니다”라며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한국 양극재업체들의 과도한 기업가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삼성 SDI는 이전에는 양극재 수급을 에코프로비엠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지만 자회사인 에스티엠이 대규모 증설을 시작했고, 포스코퓨처엠과도 중장기 계약을 맺었다.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 보면 삼성 SDI나 SK On 이외의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미국 시장을 선점한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지만 최근 진행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 중국업체들의 미국 이외 시장의 잠식 등의 이슈는 모든 관련업체들의 기업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5년 실

적 기준으로 해외 양극재업체 대비 PER이 4배 가까이 높아 한국 양극재업체들의 주가는 단기 수급 요인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적정주가는 대부분 현재 주가보다 낮다.

대신증권은 수주 소식에도 목표주가를 오히려 2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하이투자증권은 목표주가 27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은 “이번 중장기 공급계약으로 내년부터 삼성 SDI 향 매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5년간 총 계약금액인 44조원이 기존에 삼성 SDI 향 매출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 7월 이후 단기에 발생한 주가 하락세로 과도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셀, 소재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낮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투운용, 국내 첫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ETF’ 출시

투자 연속성 이어갈 수 있어
리스크 줄이고 금리 매력 높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달 중 국내 최초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만기자동연장 채권형 ETF는 특정 만기월에 해당하는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주로 편입한 뒤 편입자산의 만기도래 시점이 다가오면 익년도 만기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자동 교체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있는 만기채권형 ETF와 달리 투자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선보이는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의 경우 출시 시점에는 2024년 11월 만기되는 채권을 편입하며, 해당 채권의 만기시점 도래 시 익년도 11월 만기 채권을 새로 편입한다. 포트폴리오 변경은 매년 11월 말일 기준 5영업일 이내에 진행되며, 분배금은 11월 마지막 영업일(지급기준일) 이후 12월 초에 지급된다.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의 비교지수는 KIS자산평가가 산출·발표하는 ‘KIS 11월 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 총수익

지수’이다. 해당 지수는 KIS 종합채권지수 구성종목 중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를 만기로 하는 ▲신용등급 AA-이상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의 특수채·은행채·기타금융채·회사채 종목으로 바스켓을 구성해 산출한다.

ACE 11월만기자동연장회사채AA-이상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역시 신용등급 AA- 등급 이상의 특수채·은행채·기타금융채·회사채 등을 편입한다. 공사 등이 발행하는 우량하고 유동성 있는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해 크레딧 리스크(신용위험)는 줄이되 금리 매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하은 기자

토권증권 시장 ‘활발’

하이투자증권, 미술품 기반 사업 활성화

‘투게더아트’와 공동 추진

하이투자증권이 토권증권(STO) 관련 기업과의 업무협약으로 토권증권 시장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투게더아트와 토권증권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하이투자증권 본사(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도현순 투게더아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이투자증권과 투게더아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술품을 기반으로 하는 토권증권 사업 활성화와 거래에 필요한 서비스 및 계좌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투게더아트는 케이옥션의 자회사



(왼쪽부터)도현순 투게더아트 대표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이 토권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로 국내 최초 미술품 투자 플랫폼인 ‘아트투게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서 높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0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투자증권, 한우 관련 상품개발 추진

‘스타키퍼’와 업무협약

한국투자증권은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운영사 스타키퍼와 토권증권 상품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공급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뱅카우를 비롯해 육류 가공센터인 고기설계소, 한우 브랜드 솔직한우 등 축산 및 유통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스타키퍼와 함께 관련 토권증권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키퍼는 자체 보유한 한우 1600두를 활용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내년 초 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9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펙·토스뱅크, 기



최서룡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장(왼쪽)과 안재현 스타키퍼 대표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솔 파트너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업계 최초로 토권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 발행까지 완료했다. 또한 각각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조각투자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 등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안상미 기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모두 ‘암스트롱’ 고객으로 만들 것”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김기혁 에스더블유엠 대표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인물이다. 1969년 7월20일 자신이 몰던 아폴로 11호를 달에 안착시키면서다.

4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암스트롱’이란 이름을 따 한국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있다.



에스더블유엠 김기혁 대표.

휴대폰 SW에서 자동차 전장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암스트롱’ 선풍 모빌리티 안전 책임지는 비전 담아

2005년 창립한 에스더블유엠(SWM)과 김기혁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경기 안양에 있는 에스더블유엠본사 5층 관제실. 이곳에선 에스더블유엠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시스템 ‘암스트롱’을 적용한 12대 차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돌발상황, 긴급 제동, 모듈 이상, 센서 이상 등 운행 관련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에스더블유엠의 자율주행차 누적 운행거리는 30만8010km로 집계됐다. 총 운행시간은 4만4164시간, 보유데이터는 7163TB에 이른다.

에스더블유엠은 현재 서울 마포 상암동에선 카니발을 개조한 승용차 2대, 대구 달성군에선 그랜저를 개조한 승용차 1대를 각각 이용해 유상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차량에는 에스더블유엠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플랫폼 ‘암스트롱 3.0’을 장착하고 있다.

암스트롱 3.0은 에스더블유엠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에스더블유엠이 개발한 자율주행 플랫폼 ‘암스트롱’이 장착된 차량.

/김승호 기자

사업의 신호탄이다. 여기에 ‘모빌리티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회사의 비전도 담고 있다.

김기혁 대표는 “2021년 11월부터 유상운송 면허를 발급해 두 곳에서 평일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율주행 시범지구에서 ‘암스트롱 5.0’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유상 운송 서비스를 새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스더블유엠이 올해 초 개발을 끝낸 암스트롱 5.0은 신경처리장치(NPU),

중앙처리장치(CPU), 마이크로컨트롤러장치(MCU) 등을 하나로 묶은 1000TOPS(초당 테라 연산) 시스템이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동시에 200개 이상의 자동차, 사람 등 사물을 인지하고 고성능 컴퓨팅 연산을 통해 사물의 방향도 예측할 수도 있다. 암스트롱 5.0(AP-500)은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기술을 갖췄다.

이를 통해 운행가능영역(ODD) 환경이 가장 복잡한 서울 강남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김 대표는 “암스트롱 5세대는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면서 “확대 사업군으로는 소형 승용의 자율주행 택시 여객 운송부터 자율주행 여객·화물선, 도심 지역 무가선타램, 자율주행 요트·보트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소프트웨어(SW) 개발회사로 출발해 자동차 전장 SW까지 사업을 확장한 에스더블유엠은 지난해 1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임직원은 181명에 달한다.

내년엔 ‘레벨4’ 맛먹는 5.0버전
강남서 유상 운송 서비스 도전
“글로벌 기업에 납품 능력 충분”

김 대표는 “자동차 전장 제품을 만드는 국내외 대부분 회사엔 우리의 SW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전세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에도 우리의 SW가 장착돼 있다. 우리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도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한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모두를 에스더블유엠의 자율주행 시스템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84% “지자체 PL단체보험료 지원 만족” “CVC 규제완화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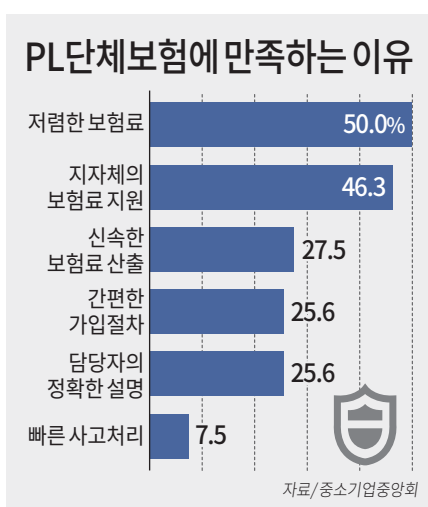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가입 191개사 대상 조사
저렴한 보험료·지원 등 만족도 높아
홍보 통한 안내·지원금액 상향 등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단체보험)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PL단체보험 가입 1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내놓은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3%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83.7%는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50.0%) ▲지자체의 보험료지원(46.3%) ▲신속한 보험료 산출(27.5%) 등의 순이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만족하면서도 홍보를 통한 안내, 신규 예산 편성, 지원금액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이 제조·판매·시공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상품으로 삼성

화재, 한화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15개 지자체와 협업체 납입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가 신규 예산을 편성·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운영본부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3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도 지자체의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원 폭을 더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協

외부자금 출자비중 50% 완화 강조

벤처업계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공정거래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벤처협회는 4일 낸 입장문에서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CVC가 가장 큰 애로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로, 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1건당 금액이 커 대부분의 신생 CVC에게 현행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해외투자 제한을 20→30%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CVC, 벤처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전통주 온라인 판로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서울 목동 사옥에서 한국전통민속주협회와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유통센터는 국세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필드’에 전통주 입점을 추진한다. 또 ‘전통주 온라인 판매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전통주 명인과 양조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유진기업, 연말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

서인천공장·서서울공장 지역에 기부금

유진그룹 모회사 유진기업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유진기업은 서인천공장과 서서울공장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각각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은 지난달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드림파크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인천과 김포 매립지 인근 주민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자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진기업 서서울공장도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과 원신동 행복복지센터에 기부금 3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 기술혁신창업가 추가 발굴 앞장

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 열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창업가 추가 발굴에 나섰다.

기보는 지난 1일 서울 강남 디캠프에서 ‘제13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기보가 발굴한 혁신창업기업 40개사와 민간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우수참여기업 9개사는 개별 IR을 통해 참석한 투자관계자에게 기업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받았다.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 행사 영상은 추후 기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맞춰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김승호 기자

이정식 “중대재해 감축, 현장의견 모아 집단지성 발휘해야”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 점검
“일부 기업, 안타까운 사고 이어져
소수 전문가·이해관계자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 참여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인천남동공단을 찾아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년 전인 지난해 11월 말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이 현장 상황에 맞는 재해예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하겠다”며 “선진국 수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4일 인천남동공단에 위치한 (주)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해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

의 안전한 사회로 도약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단 내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인 (주)교원프라퍼티 사업장을 방문했다.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한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확산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모두발언 직후에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전문가와 산업안전감독관, 청년 현장관계자,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했다.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로드맵 추진현황 및 개

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중대재해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 특히, 청년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로드맵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로드맵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는 올해 1~9월 45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명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10월 연휴, 여행·옷 수요 늘어 온라인쇼핑 사상 첫 20兆대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편리성·가격 경쟁력에 증가 추세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역대 규모

여행 수요·의복 구매 등에 힘입어 월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17조9709억 원)에 비해 11.8% 늘어난 20조9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올해 4월 17조 원 규모로 잠시 주춤했으나 5~9월 기간에 18조~19조 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10월에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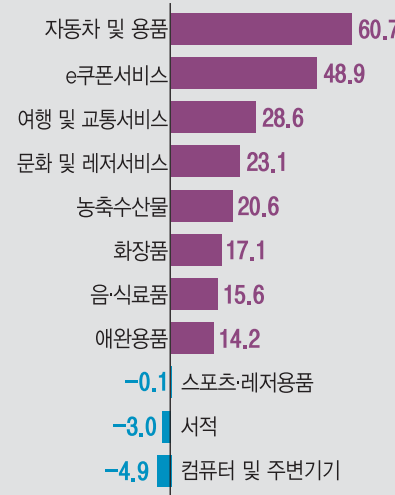
10월 기준으로, 2017년 7조6000억 원대 수준이던 거래액은 2018년 10조 원대로 진입한 뒤 2020년 13조8000억 원, 2021년 16조6000억 원, 지난해 17조9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거래 편리성, 가격 경쟁력 등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여행 수요가 지속돼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28.6% 늘어난 2조9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추석연휴에 이은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음·식료품과 이(e)쿠폰 서비스도 각각 15.6%, 48.9% 증가한 2조4천803억 원, 8천9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동

온라인 쇼핑 주요 증감 품목

10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뉴시스 그래픽

북 등 옷 구매가 늘면서 의복 거래액은 5.6% 증가한 2조44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이 1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서비스(11.0%), 여행·교통서비스(10.5%) 순이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0.0% 증가한 14조7천158억 원이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73.2%에 달했다. 특히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는 모바일 비중(98.2%)이 압도적이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 종합몰의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한 12조2972억원, 전문몰은 17.0% 증가한 7조7933억 원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 협약... 내년 국산 가루쌀 신제품 출시

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스타벅스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식품을 개발하고 농가에게 커피박 퇴비를 기부하는 등 농업과의 상생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스타벅스는 이번 협약의 첫 결과물로 내년 상반기 중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손정현 기자 son@

공정위, ‘한전 SW 입찰담합’ 4개사 적발

(소프트웨어)

과징금 총 2.5억 부과

한전과 한전KDN이 발주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4개사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KDN이 2019년 4월 ~ 2022년 5월까지 기간 중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텍스퍼트 4개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2월 공익신고 중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이첩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과 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텍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

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텍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제한 건으로,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환경부, ‘세계토양의날’ 기념행사·포럼 개최

산·학·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 참석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세계토양의날을 맞아 기념행사 및 토양·지하수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를 주제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5~6일 예정돼 있다.

유엔(UN)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정기총회에서 12월5일을 세계토양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해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어린이 등 토양 보전에 관심 있는 3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공연은 충남 서천에 위치한 장항송림숲(장항제련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배경으로 현악4중주의 연주가 진행된다.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부터 수십년간 운영되면서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곳이었

으나 2009년부터 토양을 정화하여 자연과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10명이 표창을 받는다. 지난 7월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참가자 어린이 16명도 상을 받는다.

또 한반도 기후의 역사와 생태학의 관점에서 토양보전의 의미를 규정한 내용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6일에는 2023 토양·지하수 공감포럼이 예정됐다. 포럼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토양 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국내의 불소 기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양·지하수 산업 및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고용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은 깨끗한 물과 공기만큼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국민들이 토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S 김호연 작가
무대 시리즈 3

2023 JIWOO PRODUCTION PRESENTS

PLAY
"Rivals in love"

연戀 敵적

한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의
아이러니 여행기

2023.10.04 - 2023.12.31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

|원작|김호연 소설 <연적> |프로듀서|황기현 |연출,각색|홍현우 |조명디자인|장영섭 |음향디자인|안형록
|음악감독|정다운 |영상디자인|김태운 |무대디자인|이주은 |제작감독|전예정 |조연출|손연주 |포스터디자인|그라운드워크
|출연|김준희 김규도 김상균 문원주 김동준 서원호 여우린 김단울 장혜민
|주최·제작|극단지우 |기획|제이엘컴퍼니, (주)브라더후드 |후원|나무옆의자
|예매|인터파크 1544-1555 |문의|02-332-4902



전남도, ‘남도한바퀴’ 초대박 흥행… 겨울까지 흐름 ‘쑥’

남도한바퀴 이용객 전년비 49%↑
실내 위주·일몰일출 감상 등
겨울 히트 상품 28개 코스 출시

전라남도는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가 올 들어 초대박 행진을 하는 가운데 남도의 일몰일출 명승지와 전통시장 겨울철 진미 탐방 등 겨울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남도한바퀴 이용객은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1029회, 2만 54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4회, 1만 7115명)보다 이용객이 49%나 늘었다.

올해 남도한바퀴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일반코스 기준 9900원부터 2만 4900원까지로 다양하고 저렴한 30여 알찬 코스를 기획, 이용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탑승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가 올 들어 초대박 행진을 하는 가운데 남도의 일몰일출 명승지와 전통시장 겨울철 진미 탐방 등 겨울상품을 출시했다.

/전남도

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관광지에 대한 지식과 흥미가 배가돼 이용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게 된 점도 한몫 했다.

여기에 전남에서 열린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등 대규모 메가 이벤트와 연계한 특별코스를 운행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전남도는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간 22개 시군을 순환하는 시티투어 ‘남도한바퀴’ 겨울 히트

상품 28개 코스 상품을 출시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이 함께 따뜻한 남도를 즐기도록 순천 세계수석박물관, 보성 판소리성지, 함평 엑스포공원 등 실내 위주 코스로 구성했다.

또한 연말연시 일출일몰을 감상할 목포구등대, 겨울 포구와 낭만을 만끽할 광양 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 코스와 고흥 동강5일장, 함평 천지 전통시장 등 제철 진미를 느낄 지역 5일장 코스도 포함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여행지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코로나 이후 이용객이 대폭 늘었다”며 “앞으로도 남도한바퀴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도한바퀴 코스 운영 및 상품 예약은 남도한바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로 예약하면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박형준 부산시장, 산업은행 이전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해 국회 방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서한 전달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국비 요청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표, 홍익표 원내대표표에 전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예결위 핵심 인사를 만나, 가덕도신공항조기 건설 등 부산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차질없는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형준 시장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표를 만나 부산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고자 했으나,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박시장은 여당 원내대표, 예결위 위원장·양당 간사 등 국회 예산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부산시

심의 과정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났다. 먼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통해 서도 언급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부산의 숙원사업이자 부산이 물류와 금융 중심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

호남 최대규모 ‘광주역 창업밸리’ 시동

광주역 후면 유흥부지 매입 완료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역 창업밸리’가 시동을 건다.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4월 국토부 부지 매입에 이어 최근(11월24일) 광주역 후면 유흥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의 부지 전체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는 등 사업 여건 변화로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어온 지역 약 2년 만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사업 대안 마련과 지역 정치권의 협조 등에 힘입어 국토부, 코레일 등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매각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감정평가, 용도폐지, 총괄청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4월 국토부 소유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번 코레일 부지는 1년 간의 실무협의 끝에 매입을 완료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조감도(BASE). /광주광역시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은 광주역 유흥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출발했다.

공공투자 비용은 약 4400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어울림팩토리 ▲빛고을창업스테이션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출범

오는 8일 출범식 가져

여수시가 오는 8일 여수문화홀에서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박람회 추진을 본격화 한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20여 명의 임원진과 함께 1차 2본부 1실 8부 형태의 사무처로 구성되며 행사장 조성, 전시 연출, 행사 운영, 홍보, 수익사업,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 조직위원장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발기

인, 임원진, 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조직위의 성공적 첫발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행사는 권역별 여수의 섬 주민이 직접 참여해 섬과 섬을 잇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 세리머니와 비전 선포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념행사 후 창립총회에서는 섬박람회 개최시기 변경 및 기간연장, 민간위원장 임명, 제규정 제정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이에 따른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도로정비 종합평가 ‘최우수’

진도군이 전남도가 실시한 2023년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포장과 구조물 관리 ▲도로표지와 안전시설 등 도로 시설물 관리 ▲겨울철 제설 대비 월동대책 등 진도군의 다양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군은 여름철 잦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파손되고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는 등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해남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해남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내년 사업 대상자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8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안동시

원스톱 인허가 처리 시스템 도입

안동시는 ‘원스톱 인허가 업무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만족도는 대폭 향상해나가고 있다.

시는 민원인 중심의 신속 정확한 원스톱 인·허가업무 처리하기 위해 종합허가과를 신설하고 민원인 방문·상담이 용이한 종합민원실로 전전 배치했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인허가 부서가 분리돼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부서 간 장벽으로 상호교류가 어려워 민원 처리 지연 등 업무 효율성도 떨어졌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울산시, ‘명장 선정 기념식’ 개최

증서·명패·기술장려금 수여

울산시는 4일 울산박물관에서 김두겸 시장, 김기환 시의회 의장, 기업관계자, 올해 울산 명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울산 명장 선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올해 울산광역시명장 선정자 5명에 대한 증서 수여식, 대한민국명장과 국가품질명장 선정자(각 1명) 명장의 전당 등재식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기념식에서 울산광역시명장 선정자에게 명장 증서와 명

패, 기술장려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2023년 울산광역시 명장’에는 ▲절삭가공 직종 HD현대중공업 김종규 기감 ▲선박건조 직종 현대미포조선 김창식 기사 ▲판금제관 직종 HD현대중공업 이규동 기원 ▲용접 직종 현대미포조선 하진웅 기장 ▲소방설비 직종 HD현대중공업 김선우 기원 등 5명이 선정됐다.

올해 대한민국명장 16명(16개 직종) 중 HD현대일렉트릭 정규완 기감이 전기 직종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됐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김해시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세미나

김해시가 (사)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오는 1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2023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해시가 학회전문가들과의 정책세미나를 통하여 동북아 물류플랫폼 사업의 구체화방향을 제시하고 지리적 접근성, 확장가능성, 개발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김해시 일원이 입지의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하여 향후 국가정책 결정의 경쟁력을 높여 유치를 최종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해(전남)=장병호 기자

캐릭터 상품으로 ‘재미·맛’ 두토끼… 식품업계, IP 사업 박차

하이트진로 두꺼비 마케팅 성과
오비맥주 ‘탈라베어’ 해외 진출
할리스 ‘할리베어’ 캐릭터 탄생

식품업계가 캐릭터 IP(지식재산)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브랜드 개성을 담은 캐릭터로 긍정적 이미지와 인지도를 구축하고, 캐릭터가 가진 매력을 통해 고객층을 두텁게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9년 원조 소주 진로를 재해석한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며, 브랜드의 마스코트인 두꺼비를 활용한 신규 캐릭터를 공개했다. 다각도의 마케팅 활동 끝에 캐릭터 인기가 높아지자 하이트진로는 타 브랜드를 활용해 캐릭터 세계관을 확대하고 TV광고, 캐릭터숍 등을 연달아 선보이기도 했다.

오비맥주는 곰 캐릭터 ‘탈라베어’를 보유하고 있다. 이 캐릭터는 오비맥주가 지난 1980년 ‘오비베어’라는 호프집 프랜차이즈를 낼 때 탄생했다. 이후 사



탈라베어 집콕 굿즈

/오비맥주

라졌던 탈라베어는 2019년 오비맥주가 ‘레트로 오비맥주’를 출시하며 재등장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과 커스터마이징 굿즈 전문 플랫폼 ‘위드굿즈’와 손잡고 굿즈를 판매한 바 있다. 오비맥주는 탈라베어를 내세워 일본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도넛 브랜드 ‘노티드’ 역시 자체 곰돌이 마스코트 ‘슈가베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슬로 작가와 협업해 개발한 슈가베어는 매장 전경을 비롯해 패키징, 포

토존 등에 적용되어 밝고 동화 같은 브랜드 콘셉트를 전달하고 있다. 노티드는 최근 롯데호텔 월드와 협업해 슈가베어 토퍼를 올린 ‘러블리 슈가베어’와 ‘슈가베어 스트로베리 케이크’ 등 한정판 케이크를 선보이기도 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는 지난달 자체 캐릭터 ‘할리베어’를 탄생시켰다. 할리스는 대중 선호도가 높은 곰돌이를 활용해 할리스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할리베어’를 개발했다. 할리스 크라운을 쓴 동글



할리베어 윈터 케이크

/할리스

동글 귀여운 모습의 ‘할리베어’는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캐릭터이며, 할리스 메뉴와 MD를 통해 다채로운 모습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식품·외식업계가 캐릭터 IP 확보·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세계 누비는 ‘두꺼비’… 하이트진로, 온·오프 마케팅 활발

‘진로 테마 스토어’ 유튜브 공개
진로 매개 여행 콘셉트 현장 전달

하이트진로의 ‘두꺼비’가 홍콩인들의 마음을 홀렸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0월 글로벌 소주 통합 브랜드 진로(JINRO)의 팝업스토어 ‘진로 테마 스토어’ 홍콩 오픈을 기념해 현장을 담은 유튜브를 1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홍콩 MZ세대와 점점 기회를 넓히고 진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기획하게 됐으며, 지난 10월부터 코즈웨이 베이에 오픈해 운영 중이다.

진로 테마 스토어는 소고(SOGO) 백화점 근처인 홍콩 최대 변화가에 위치



글로벌 소주 통합 브랜드 진로(JINRO)의 홍콩 팝업스토어 ‘진로 테마 스토어(JINRO THEME STORE)’ 매장 입구

/하이트진로

해, 지난 두 달간 방문자수 약 2만명을 기록했다. 또 홍콩 인기 SNS인 ‘샤오홍슈’에 다양한 방문 후기가 올라오는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며 홍콩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소주 문화를 알리고 진로의 존재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로 테마 스토어에서는 참이슬, 과일리큐르, 무알콜맥주인 하이트제로 등 하이트진로의 모든 주류와 음료 18종을 구매 및 시음할 수 있다. 또, 소주의 다양한 음용법을 알리기 위해 바텐더가 직접 개발한 레몬티, 모히또 등 8종의 소주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플로렌스 풍(33)씨는 “소주를 활용한 레몬티 칵테일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두꺼비 캐릭터 명화를 구경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

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하이트진로는 팝업스토어를 더 알리기 위해 지난 1일 글로벌 공식 유튜브 채널 ‘더 리얼 진로’에 홍콩 팝업스토어 현장을 공개했다.

영상은 채널 내 인기 시리즈 ‘점퍼트레블’의 12번째 에피소드로 제작됐으며, 홍콩 명소와 함께 팝업스토어의 현장과 칵테일 제조과정을 담아냈다. 점퍼트레블은 진로를 매개로 시공간이 바뀌는 여행 콘셉트로 각 국가의 명소를 다니며 진로의 마케팅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글로벌 시장 내 진로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에피소드마다 조회수 100만을 넘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홈쇼핑 “올해 패션 키워드 ‘프리미엄’” 홈플러스, 쿼커머스 ‘시성비’ 경쟁력 강화

(시간대비 성능 효율)

소재, 디자인 등 고급스러움 선호

현대홈쇼핑은 올해 TV 홈쇼핑 판매량을 분석해 ‘2023년 베스트 브랜드’ 10개를 4일 선정했다.

올해 베스트 브랜드 10 순위에는 패션 시장에서 불고 있는 ‘올드머니룩’과 ‘스텔스 럭셔리’ 트렌드가 반영되며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가 강세를 나타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며 로고를 크게 부각하는 패션보다 좋은 소재와 기본에 충실한, 우아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스타일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실제 현대홈쇼핑 자체 브랜드(PB)로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이 강점인 ‘라씨엔토’가 61만세트 넘게

판매되며 전년보다 두 계단 오른 베스트 브랜드 1위에 올랐다.

현대홈쇼핑이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과 손잡고 선보이고 있는 ‘이상봉에디션’과 ‘J BY(제이바이)’ 등 현대홈쇼핑 단독 판매 패션 브랜드들도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또, 올해에는 엔데믹 본격화로 레포츠와 뷰티 연계 상품 소비가 증가한 점도 특징이다. 실용성과 활동성이 높아 야외활동에 적합한 브랜드로 평가받는 ‘USPA’가 2위를 차지했고, 저렴한 가격대에 편안한 착용감으로 호응이 높은 슬리퍼 브랜드 ‘신미사’와 ‘알타핏’이 순위권에 신규 진입하며 각각 4위, 10위를 차지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1시간 즉시배송’ 앱 신규 UX·UI 적용

홈플러스가 ‘쿼커머스’에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의 효율)’를 더해 고객 편의에 승부수를 띄운다. 쿼커머스 분야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다.

홈플러스는 4일 최근 유통업계 쇼핑 트렌드로 ‘시성비’가 떠오르면서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편리한 쇼핑 채널에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1시간 즉시배송’ 앱(App)의 새로운 UX/UI는 고객 쇼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입률이 높은 메뉴를 첫 화면에 배치해 장보기 속도를 개선하고 ▲할인 행사/카드할인

혜택 알림 ▲인기 기획전/추천 상품 등 ‘퀵 메뉴’ ▲인기 검색어/복합 구매 혜택/점포별 주문 가능 시간/함께 구매한 상품 추천 등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홈플러스 온라인 ‘1시간 즉시배송’은 2021년 2월 론칭 이후 2022년 매출이 전년비 121% 뛴 데 이어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월 2회 이상 이용하는 단골 고객은 첫째부터 3배 이상 늘고, 월간 방문자 수는 최대 330만 명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올해 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2월) 마감 실적을 기준으로 ‘1시간 즉시배송’ 3개년 연평균 성장률(CAGR)이 80%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컬리 “연말 선물 챙기세요”

‘해피 리틀 핑스 캠페인’ 전개

컬리는 ‘해피 리틀 핑스 2023 연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컬리는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짝 연말 선물을 준비했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15일간의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12개의 카드를 클릭하면 어드벤처 캘린더 선물처럼 하루에 하나씩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캘린더 당첨에도 자동 응모된다. 빈티지한 색감으로 유명한 최환욱 작가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협업해 제작한 2024년도 한정판 컬리 캘린더다. 추첨을 통해 총 3000명에게 선물한다. 분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3만7000원 상당의 컬리 지류 쿠폰팩도 담았다.

/최빛나 기자

G마켓

아시아나 항공권 단독 특가

G마켓이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항공라운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프리미엄 항공라운지는 G마켓의 멤버십 회원인 신세계유니버스클럽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여행/항공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모션이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석 전 노선을 멤버십 회원에게 특가에 선보인다. 아시아나항공 ‘A380 비즈니스 스위트’,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포함, 보다 여유로운 여행을 위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단독 특가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1일까지 멤버십 회원에게는 아시아나항공 일반석도 일반 회원 대비 최대 10만 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과 산학협력한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수료식을 지난 2일 가졌다.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데이터분석 아카데미 4기 수료

롯데칠성음료가 유통기업의 디지털 전환(DT) 환경 속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육성에 힘 쏟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일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과 산학 협력한 ‘데이터 분석 아카데미 4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수료식 당일 임직원들은 조별 캡스톤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고 현업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내년 부터 롯데칠성음료는 DT전문 인력과 실무자들이 협업하여 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韓 제약기업, 바이오시밀러 차별화 ‘상호교환성’ 확보로 경쟁력 높인다

삼성에피스 하드리마 절차 돌입
올 10월 첫 바이오비즈 인정 받아
셀트리온 유폴라이마 임상 후 진행
2025년까지 11개 제품군 완성 목표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미국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상호교환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의사가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지, 약국에서 대체 처방이 가능한지 등이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터체인저블(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허가한 제품은 의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해도 약국에서 대체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때 ‘상호교환성’으로 지정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4일 바이오·제약 업계에 따르면 FDA가 허가한 바이오시밀러는 지난 9월 기준 43개다. 이 가운데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는 총 6개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바이우비즈’는 올해 10월 3일 미국 식품의약국 변경 허가 공문을 통해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지정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가 올해 10월 처음으로 ‘바이우비즈’의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았다. ‘바이우비즈’는 안과 질환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로, 앞서 지난 2021년 9월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의 상호교환성 허가 심사 절차에도 돌입했다고 밝혔다.

‘하드리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판상 건선 등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서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에 하드리마의 ‘상호교환성’ 인증 관련 바이오 의약품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고농도 제형 하드리마 간 약동학적

유사성을 확인한 임상 4상 결과도 확보했다.

셀트리온도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는 ‘유폴라이마’가 있다. 셀트리온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유폴라이마’와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연내 마무리하고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10월에는 80mg/0.8mL와 20mg/0.2mL 등 용량제형 허가를 추가로 획득해 유폴라이마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셀트리온은 가장 먼저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는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오는 2025년까지 11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애경산업 ‘바이컬러’ 두번째 팝업 진행

서울 성수 무신사 스튜디오서 운영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뷰티 텐탈 브랜드 ‘바이컬러’가 팝업 매장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관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컬러’는 오는 14일까지 서울 성수에 위치한 무신사 스튜디오 3층에서 ‘바이컬러, 마이 컬러!’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바이컬러는 바이컬러의 팝업 매장을 지난 9월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에서 열린 행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보인다.

‘나의 컬러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나에게 맞는 색을 찾고 그 색을 매개로 구강 상태에 맞는 구강 관리 제품을 찾는 과정이 펼쳐진다. 물방울 형



오는 14일까지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바이컬러’ 팝업 현장에서 브랜드 모델 한혜진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애경산업

태의 반구형 돌립판, 서랍 등을 활용해 구강 고민에 필요한 제품을 색상별로 소개하고 있다.

또 ‘바이컬러’를 상징하는 세가지 색상인 빨강, 파랑, 노랑으로 꾸며진 공간들은 바이컬러만의 개성과 감성을 나타낸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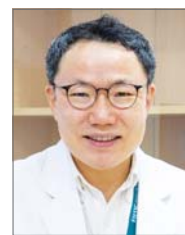
이화의료원 ‘로봇수술’ 갑상선 합병증 줄여

강경호 외과 교수, 우수연제상 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로봇 수술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강경호 이대서울병원 외과 교수가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경호 교수는 ‘로봇 갑상선 수술을 통한 완전 피막 박리’에 대해서 발표했다.

강경호 교수는 로봇 수술을 응용해



‘완전 피막 박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피막 박리를 갑상선 바깥쪽 표면뿐만 아니라 안쪽 표면에서도 시행하는 것이다. 피막 박리는 갑상선 수술 중 후두 신경과 부갑상선을 보존하는 표준 술식이다. 강경호 교수에 따르면 ‘완전 피막 박리’는 수술 중 갑상선을 강하게 당기지 않아도 된다. 또 부갑상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도 보존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CJ프레시웨이, 스마트팜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 기술력 활용 등 계약재배 농민과 상생, 최적 솔루션 만들어

CJ프레시웨이가 스마트팜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해 나선다.

CJ프레시웨이는 스마트팜의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력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 계약재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개인농가가 많은 우리나라 농업환경 특성상 농가의 경작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농산물 재배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 등으로 가격변동 폭이 큰

시장 환경에서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 물량을 확보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용수 및 비료와 농약 등을 최소화하는 저투입 농업을 통해 환경부담을 줄임으로써 ESG경영을 실천한다는 전략이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해부터 노지 스마트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국내산 수요가 많은 마늘, 양파, 감자 등 작물을 ▲제주 대정(마늘) ▲충남 서산(양파) ▲충북 당진 및 경북 의성(감자) 등의 지역농가와 함께 재배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이를 통해 수확한 농산물을 전량 매입해 외식 및 급식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CJ프레시이웨이는 내년부터 노지

스마트팜을 통해 축적한 재배 데이터와 사업 노하우를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추진 중인 보은군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1월 29일 충북 보은군과 함께 스마트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농민들과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보은군청 관계자를 포함해 보은군 지역농민 등이 참여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설명회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보은군과 함께 경작지 규모 및 재배작물을 확정해 경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푸드, 1만원대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포

신세계푸드가 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즐거운 꽃카’ 케이크를 포함한 1만원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대웅제약 ‘간 때문이야’ 주제곡 MZ 호응

유튜브서 영상 513만 뷰 기록

대웅제약이 ‘간 때문이야’라는 주제곡을 활용해 MZ세대에게도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를 알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간 때문이야’ 영상이 유튜브에서 513만 뷰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간 때문이야’ 영상에는 원조 ‘우루사맨’ 차두리 축구 국가대표 코치부터 배우 김아영, 방송인 재재, 래퍼 로꼬, 국악인 신유진 등이 등장한다. 무엇보다 스토리텔링형, 국악, 랩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된 점이 주효했다.

대웅제약은 앞서 지난 9월 ‘우루사맨’으로 13년 만에 복귀한 차두리 코치



‘간때문이야’ 국악판 광고의 ‘수궁가’를 응용한 가사가 호평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

와 MZ세대 직장인 연기로 화제가 된 배우 김아영의 신규 영상을 공개했다.

또 신세대 국악그룹 ‘리폴라’와 이날 치벤드의 보컬로 활동했던 국악인 신유진이 부른 영상도 추가했다. 특히 판소리 5마당 중 하나인 ‘수궁가’를 우루사에 맞게 해석했다. /이청하 기자

CGV,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전 진행

6~19일까지 전국 15개 아트하우스서

CGV가 영화 ‘괴물’의 개봉을 기념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전’을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전국 15개 아트하우스 전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1995년 ‘환상의 빛’으로 데뷔한 이후 인간의

내면과 관계에 집중한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 세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많은 영화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만나는 작품은 최신작 ‘괴물’을 비롯해 ‘어느 가족’,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무도 모른다’, ‘원더풀 라이프’ 등 총 6편이다. /신원선 기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전 6편 영화 포스터, CGV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GRAND OPEN
2023.11.17

OPEN EVENT
11.17 - 12.07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00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와인픽스 분당정자점에 초대합니다.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winepick_s

WINE PICKS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금융,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100억 전달

우리금융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부로 나를 가지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지 있게'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성금 100억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한화손보-세종시-금감원, 지역 사회공헌 협약

한화손해보험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노력에 나섰다. 한화손해보험은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함께 같이, 아름다운 동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왼쪽 첫번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가운데), 이복천 금융감독원 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창립 10주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윤창호 이사장은 지난 10년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꿈나눔재단과 다양한 나눔을 함께 온 재단 임원들과 협력 후원처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한국증권금융



KBI그룹-한국외대, 글로벌 인재양성 맞손

KBI그룹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 양성에 나선다. KBI그룹은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인력 확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글로벌 특화 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채용연계형 표준현장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KBI그룹



초허당 권오춘 교수, 동국대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

초허당 권오춘 동국대 교육대학원 종신 석좌교수가 가정형편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국대학교는 지난달 28일 '2023년도 초허당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100만원씩 총 1100만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현대차, 아이오닉5·스포티지 '가장 안전한 車' 선정

IIHS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선정 측면충돌 등 강화된 평가기준 충족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와 기아 '스포티지'가 미국 충돌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4일 아이오닉 5와 스포티지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충돌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올해부터는 측면 충돌과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 기준을 높이고 헤드램프 평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졌다.

측면 충돌평가는 기존보다 차량과 충돌하는 물체가 더 무거워지고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스포티지

충돌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여기에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는 기존에 없던 야간 테스트가 추가됐으며, 헤드램프 평가도 TSP와 TSP+ 모두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acceptable)'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텔 오버랩, 조수석 스텔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등 총 4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

인 '훌륭함'을 획득해야 한다. 또 주·야간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과 보행자)에서 '우수함' 이상의 등급을, 전조등 평가는 차량의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한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

다.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매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모든 차량을 개발함에 있어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 별세

한국 반도체 장비 산업 주도 회장... 빈소 삼성서울병원

한국 반도체 장비 산업을 이끌어온 한미반도체 곽노권 회장이 4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故) 곽 회장은 1967년 모토로라코리아에 입사해 14년 근무 후 1980년 한미금형(현 한미반도체)을 설립하며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다. 곽 회장은 지난해까지 경영을 맡아 다양한 국산 장비를 만들어왔다. 1998년 개발한 '비전플레이스먼트'는 2004년 이후 세계 점유율 1위로, 글로벌 320여개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HBM 필수 장비인 '듀얼 T C 본드'를 개발하며 한미반도체를 국내 최고 수준 반도체 장비 업체로 성장시키는데 공헌했다.



故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

1991년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2013년에는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업계 대부로 인정받았다. 1997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을 후원하며 사회적 책임에도 힘썼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로, 한미반도체 회장으로 치러진다. 오는 6일 발인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모비스, 장애인식 개선 동화책 발간

'날 부르지마!' 발간... 무료배포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동화책을 발간했다. 이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다.

현대모비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동화책 '날 부르지마! (사진)'를 발간하고 전국 장애인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공공 어린이도서관 등에 3500권을 무료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식개선 도서를 발간하기 시작해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 권리, 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갈등, 장애친화적 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동화책 누적 배포 건수는 2만 5000권에 육박한다.

올해 발간한 '날 부르지 마!'는 초등학교 내에 일어나는 발달장애에 대한 오해와 이를 서로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책에서 아이들은 장애인 친구를 보며 낯설어 하고 불편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단단한 친구 사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서로 달라서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10번째 도서 발간을 기념해 내년에는 그간 발간된 책을 모아 특별 전집을 제작해 사회복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HD현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억 기탁

권오갑 회장 "사회 더 따뜻해지길"

HD현대가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HD현대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HD현대는 앞서 지난 4월 강릉지역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7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5억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굴착기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HD현대는 지난 2011년부터



터 임직원들의 급여 나눔으로 만들어진 HD현대1% 나눔재단을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HD현대아너상도 제정해 올 연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사진)은 "HD현대가 전달하는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중근 회장, 대학 인프라 개선 팔 걷어

〈부영그룹〉

카이스트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부영그룹이 카이스트(KAIST)에 약 200억원 상당의 기숙사를 리모델링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4일 KAIST 나눔관에서 열린 '우정(宇庭) 나눔 연구동 기공식'에 참석해 200억원 상당의 기숙사 리모델링을 약속했다.

리모델링 대상 기숙사는 가장 노



후화된 대전캠퍼스 나눔관과 공동아파트, 서울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 4개동이다. 이중근 회장(사진)은 "대한민국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인 KAIST에서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인사

◆ **비즈워치** △ 대표이사 김춘동 △ 경영전략본부장 김상욱

부음

▲ 정영자씨 별세, 전옥(영원무역 부장)·전진배(JTBC 뉴스콘텐츠 부문 대표이사)씨 모친상, 강인열(개인사업)씨 장모상, 이윤희씨 시모상 = 3일 오후 6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실, 발인 6일 오전, 장지 용인천주교묘지. 02-2258-5961

▲ 문봉금씨 별세, 이종한씨 부인상, 이선희·이현희(마산세무서)·이정원(이천세무서 남세자보호담당관)·이귀원(연합뉴스 전국부장)씨 모친상, 김희곤(개인사업)씨·문봉식(개인사업)씨 장모상, 최미화(서울 광진구의회 의정팀장)·김미형(초등학교 교사)씨 시모상 = 3일,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6일 오전 5시, 장지 경남 함양 가족묘지. 02-2152-1349



FC24



DUAL ENTITLEMENT

THE WORLD'S GAME
PLAY NOW

HYPERMOTION
TECHNOLOGY



전제이용가

HyperMotionV 테크놀로지는 PlayStation 5,
Xbox Series X|S, PC 버전에만 적용됩니다.

All UEFA Champions League, UEFA Europa League and UEFA Europa Conference League names, logos and trophies are the property, registered trade marks, designs and/or copyright for UEFA. All rights reserved. © 2023 Electronic Arts Inc. Electronic Arts, EA, EA SPORTS, the EA SPORTS logo, EA SPORTS FC, and the EA SPORTS FC logo, Frostbite and the Frostbite logo, and Ultimate Team are trademarks of Electronic Arts Inc. "PS" and "PlayStation"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Inc.

GamePia

PLAY
HAS NO LIMITS™

2023년을 통계로 점검하고 진단하자



이 상 현 **의**
창업 칼럼

창업은 수치와의 전쟁이다. 힘겹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수, 객단가, 마진율, 회전율, 경상비, 수익률 등은 모두 수치화해 경쟁력을 확인해야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산업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사업체 수는 2021년에 비해 1.7% 증가했다.

특히 숙박과 음식점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년대비 숙박업·외식업은 7.5%인 약4만9000개가 늘었다. 뒤를 이어 제조업도 3.7%인 1만3000개가 증가했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업은 0.11%(110개) 감소했다.

문제는 이같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업종별로 전부 감소했다는 점이다. 종사자 중 비임금 종사자는 증가했으나 임금종사자는 줄었다. 사업체 수에서 증가를 보인 숙박·음식업에서도 종사

자 수는 전년 대비 16.2%인 25만2000명이 감소했다.

사업체 수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임금 종사자에 비해 비임금 종사자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임금 종사자 수가 감소한 배경에는 무인과 1~2인 소자본 창업 증가가 있다.

창업시 수익성과 직결되는 항목으로는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변동성 비용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업종 선택부터 고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년간 무인창업이나 1~2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 급부상했다.

하지만 무인아이템의 특성상 서비스가 부족하고 고객들의 지속적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매력도가 떨어진다. 매출이나 수익성 기반에서 실효를 거둔 아이템이 거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코로나 정국이 창업시장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바꿔 놓았다. 코로나19 전에도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그 몇 배로 소상공인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수인 BSI는 71~90사이를 널뛰기 한다. 창업도 힘들지만 이미 창업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그에 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년도 대비 약 18.5% 상승한 원부재료비율과 함께 일반 관리비인 전기, 가스 등 경상비는 지난 3년간의 상승률을 넘어선 약 17.5%로 이미 버틸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 어떤 지원이나 대책도 전무하다.

고용의 불안과 일자리의 부족은 젊은 층을 창업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매출과 수익성을 위한 비대면, 저인력 그리고 저자본적 창업 아이템에만 관심이 쏠리는 기형적 창업 환경이 형성됐다.

결국, 어려운 창업 환경에서 스스로가 사업을 객관화해 돌아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2023년을 수치화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건설정책 박사)

현대차, 수출 300억弗 성과... 올 ‘최고 수출의 탑’

무협,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현대차, 전년비 실적 약 30% 상승
기아·LG이노텍·삼성SDI 등도 수상

현대자동차가 올해 자동차 수출 300억 달러 성과로 한국무역협회가 주는 영예의 ‘최고 수출의 탑’을 받는다.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교역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거둔 596명이 정부 포상을 수상한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 한 해 세계 교역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무역 업계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역의 날은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제정된 후 1990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고, 지난 2011년 12월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매년 12월 5일 개최되는 ‘무역의 날’ 기념식 6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광장에서 무역협회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협

바뀌 기념하고 있다.

‘수출 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에서는 현대자동차가 300억달러로 최고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전년 대비 약 30% 상승한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어 기아가 200억불 수출이 탑을 수상했으며, LG이노텍 100억불, 삼성SDI 60억불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하는 등 총 1704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수출

의 탑은 단일 법인이 달성한 수출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경신할 때 수여한다.

올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대기업 36개사, 중견기업 113개사, 중소기업 1555개사)의 91%는 중소기업이 차지했으며, 산업군 별로는 자동차 및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수출 유공자 부문에서는 손보익 엘엑스세미콘 대표이사, 전세호 심텍 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윤종찬 비엠티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케이지 모빌리티 정용원 대표 등 6명이 은탑산업훈장을, 현대아이에프씨 주식회사 양국석 대표 등 9명이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592명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단체표창은 지역수출 지원을 촉진해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충청남도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가 받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0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동사남북 어느 쪽으로 가도 아름답다. 48년생 돈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 난다. 60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 72년생 실의에 빠지지 말자. 84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리기 어렵다.



37년생 경관은 넓고 화려하나 머물 곳이 없다. 49년생 사회적으로 정의와 책임 의식이 일어난다. 61년생 입안의 허쳐럼 구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73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85년생 심신을 닦고 집안도 청결히 닦자.



38년생 백(魄)이 편안해야 후손도 편안해진다. 50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협력자. 62년생 오늘의 풍요는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74년생 녹색이 행운을. 86년생 물과 고기의 관계처럼 뗄 수 없이 친한 친구가 있어 감사.



39년생 기도로 우환을 줄여보라. 51년생 사람의 귀천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구분되는 느낌. 63년생 보험으로 남은 노후대비를 조금씩. 75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불평 말고 차라리 가지 않으면 된다. 87년생 부인으로 인해 손재수.



40년생 독신이 부자라면 그 재물을 지키기가 수월치 않다. 52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일을 중지. 64년생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 76년생 부지런하여 앞서가는 사람을 본받도록. 88년생 떠나간 인연에 집착 말고 잊는 것이.



41년생 불행한 가정은 말이 많아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53년생 이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65년생 약속이 겹치지 않도록 메모하라. 77년생 하나를 주고 두개를 얻는다. 89년생 너무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살지 않는다.



42년생 잠자기 전에 물을 떠 놓고 명상을 잠시 해보라. 54년생 말을 많이 하려면 지갑도 열어라. 66년생 횡재의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 78년생 뺨사람을 도우니 성과가 온다. 90년생 풍과 보리는 분명 모양이 다르니 우기지 말자.



43년생 어려운 일이 닥쳐도 독심으로 밀고 나가자. 55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67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일하라. 79년생 중간에 주변이 시끄러워 절로 입을 다문다. 91년생 조상 땅을 팔지 말고 문중을 돌봐보라.



44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56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고 했다. 6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80년생 아침에 주변을 청결하게. 92년생 이웃 간에 소음이라도 다루려 하지 말고 양보하며 해결.



45년생 대기업을 그만두겠다는 아들이 기가 막혀서 우울. 57년생 시비를 가리니 내 허물이 더 크다. 69년생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81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93년생 재물의 증식은 음陰의 영역에서 시작이니 자랑 말라.



46년생 고독하게 치우쳐 있는 삶에는 재정이 도모되지 않는다. 58년생 평생 부모님 생신날 효를 행한 적이 없어 후회. 70년생 골치 아픈 일은 조연을 구하여 처리. 82년생 간교한 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94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쏟아라.



47년생 액운을 막아주는 풍속을 따르는 것도 지혜. 59년생 조력자가 있어서 행복. 71년생 고급관리가 되기 전초전. 83년생 금전 문제는 사람 잃고 돈을 잃으니 받을 생각 말고 줘라. 95년생 좋은 기운은 나은 삶을 이끌어주니 긍정과 겸손을.



김상회의四季 바라지 마라

현재의 처지에 지나쳐 보이는 과도한 선물을 요구할 때 부모들은 아이에게 과제를 내준다. 시험 점수를 얼마 올리던지 집 안 청소를 한 달간이라도 깨끗이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도 역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천지신명이나 불보살님들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때 쓰는 아이 달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간사 세계에서는 통할 수도 있는 방법이겠지만 육계 천상이나 색계의 세계에서는 지극한 정성과 하심만이 천신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꾸준한 건강관리는 육체적으로도 면역력을 키워주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듯이 기도의 생활화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습관은 정신적으로도 샛된 기운이 범접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우주의 기운이 자석처럼 와서 돕게 하는 신묘한 힘을 갖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에 걸리는 일을 반성하게 되면 같은 실수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의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

마음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가피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사람을 깊어지게 한다. 복 받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기복신앙일 뿐 내면과 영혼을 깊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무조건 바라는 마음을 목적으로 삼지 말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선조들 특히 어머니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정성스레 물 한 그릇이라도 받아서 장독대에 올려놓으시고는 먼 길 떠난 가족은 물론 식솔들의 안녕이나 무탈을 빌던 모습은 그 자체로 치유를 보는 듯하다. 필자의 경우 뭔가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작은 안도감이 들며 이렇게 하면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쓴 느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2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2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강 야시장 장소이전·축소 위기에 시의회 “대중성 고려해 재검토해야”

야시장 세종로공원 이전 예정에
인지도, 시민 수요 등 고려해야
한강 야경 사업 연계 등 유지 제안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공원에서 운영했던 야시장의 개최 장소를 내년에 세종로공원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대중성을 감안해 한강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시의회는 글로벌 패션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서울패션로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3~12월 서울시는 14억70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을 진행한다. 이전과 다른 점은 2024년부터는 야시장 여는 장소를 한강공원에서 세종로공원(종로구 세종대로 189)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시가 ‘한강공원 야시장’을 ‘광화문 푸드마켓’으로 바꿔 운영하고 참여 상인을 75개팀에서 10개팀 수준으로 줄인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는 지난 2015년 ‘서울야시장’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여의도한강공원 일대에서 먹거리와 아이디어



한강 달빛 야시장 운영 모습.

/서울시

상품을 사고파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열었다. 금년엔 12회 개최됐으며, 60만명이 다녀가 19억3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 야시장에 참여한 상인 규모는 각각 152개팀, 170개팀이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강공원 야시장은 주말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 행사 이후 발생한 쓰레기 처리, 인접 화장실 부족 문제 등 야시장 운영과 관련된 민원 발생으로 내년부터 장소를 이전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2024년 야시장 사업 예산은 올해(18억8950만6000원) 대비 22.2% 감액된 14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장기간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온 야시장 개최지를 한강공원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현재 한강 야시장의 인지도와 시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한강 달빛야시장은 여전히 많은 시민이 찾는 행사이며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았으므로, 사업의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광화문 앞 세종로공원과 함께 서울 대표명소 곳곳에서 운영되는 야시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강의 야경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업 예산이 편성된 바, 연계해 운영 가능한 한강공원 야시장 사업의 유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위험 3배… 보호 시급

서울시교육청, 상황별 대응 지침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자살·자해에 위험도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지침’(이하 행동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실시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21.7%가 자살 위험이 큰 집단으로 분류됐다. 학교 청소년(6.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번에 제작한 행동지침은 위기 학

교 밖 청소년이 자살·자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청소년 도움센터 등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당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행동 지침은 위기 상황별 대처방법으로 구성돼 긴급, 응급, 준응급의 위기 상황별 대처 방법 및 도움센터 근무자의 대응 방법을 기재하여 빠르고 침착한 구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특히 위기 청소년의 긴급·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신속 지원 절차도 행동지침에 수록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앱 출시

앱 ‘TABА’ 해외카드 결제 지원

서울시는 이달 1일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 앱 ‘TABА(타바)’가 정식 출시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경우 한국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과 국내 발행 카드 위주의 결제 방식 등 제한적인 서비스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타바 앱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인증 가

능하며, 해외 카드 결제도 지원한다.

관광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거리와 요금이 화면에 표출된다. 추천경로·최단경로·통행료 면제 경로 가운데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이 추가된다.

타바 앱 출시를 기념해 첫 번째 이용에 한해 택시 요금의 5%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교대 정시 1744명 선발… 영역별 비율 ‘비슷’

총 13개 대학… 전년비 73명 증가
한국교원대 가군, 나머지는 나군
초등교육과엔 성비 제한 두기도

초등교육과가 개설된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등 총 13개 대학에서 2024학년도 1744명(정원 내)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최근 입영 어려움과 교권 추락 등으로 교대 인기가 낮아지고 있지만, 교대에 확고한 진로희망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는 서울교대에서 41명, 진주교대에서 32명의 선발인원을 늘리면서 전국에서 전년 대비 73명이 증가했다.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경인교대로 일반학생 235명, 만학도 25명을 선발한다. 13개 대학 중 한국교원대(45명)만 가군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12개 대학들은 모두 나군에서 선발한다.

교대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동일한 비율이 아니더라도 영역 간 반영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단, 서울교대는 영어와 한국사를 점수에 포함하지 않고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해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춘천교대는 영어 반영 비율이 낮아 14.2%만 반영한다.

이화여대가 수학 비중을 기존 25%에서 올해 30%로 높이고 탐구 비중은 기존 25% 올해 20%으로 낮췄다.

일부 대학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가 올해부터 가산점을 폐지했지만, 경인교대, 진주교대, 한국교원대는 여전히 수학(미적분/기하)에 3~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대는 이번에 가산점을 새로 도입해 미적분/기하 및 과탐 응시자(2과목 응시자에 한함)에게 각각 5%씩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학별 면접 반영 여부나 비율도 달라 확인해야 한다. 광주교대, 이화여

대, 제주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는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면접을 치르는 대부분 대학은 단계별 전형 형을 통해 모집정원의 1.5배수 또는 2배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른다. 단, 대구교대, 부산교대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른다.

면접 반영 비율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명목상 반영비율이 높더라도 면접에서 기본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산교대나 진주교대, 청주교대의 경우 명목상 면접 비율은 20%이지만 실질 반영률은 각각 4.8, 5.9%, 9.1%로 내려간다.

초등교육과의 경우 성비 제한을 두기도 한다. 남·여 한쪽 성별이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년도 경인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에 이어 올해 광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가 성비 적용 폐지했지만 광주교대(70%), 제주대(70%)는 여전히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

/이현진 기자 lhj@

파주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 등 높은 점수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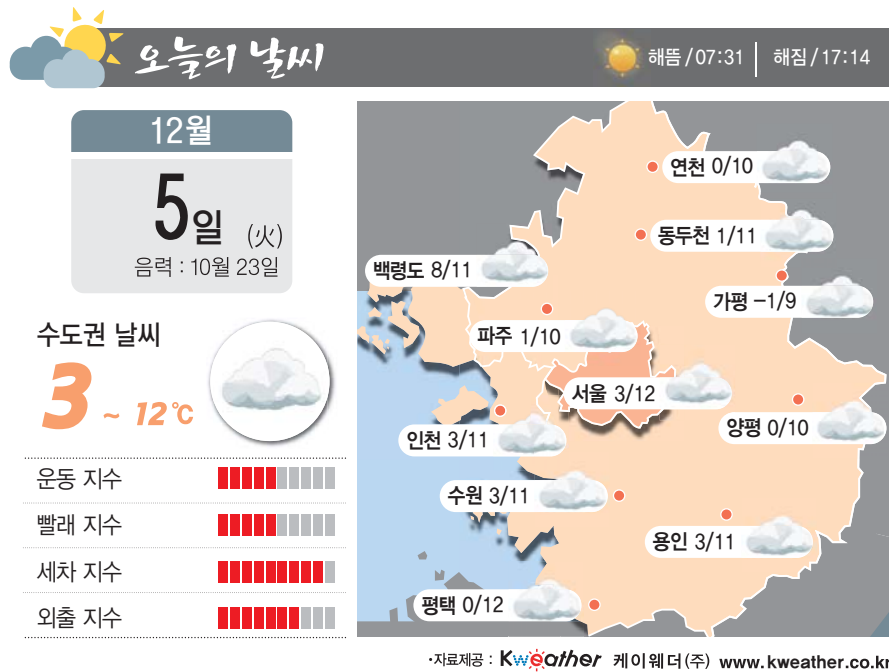
2019년 최우수, 2020년 최우수, 2021년 우수, 2022년 우수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23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4개 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특수시책 사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파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실적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이행 실적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로관찰제 및 기동처리반 운영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 등 정량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스라엘, 공습 재개... 가자지구서 700명 이상 숨져 /사진 뉴시스
▲중국 신용불량자 845만명... 코로나 19이후 최대

▲백악관 “이스라엘의 하마스 계획 사전 인지, 우린 몰랐다”
▲후티반군, 홍해서 미군함·상선 공격... 美 “드론 격추”



▲박기시, “과거 통일교 우호단체 수장과 면담” 보도에 “기억 안나” /사진 뉴시스
▲러시아, 4~5일 발다이 아시아 회의 개최... “다국하 등 논의”



캐릭터 상품으로
두 토끼 잡았다
식품업계 IP사업 박차
나



Life

韓 제약기업
상호교환성 확보로
경쟁력 높인다
L2



사회적 투자, 탄소저감 앞장... “금융투자업계 모범 될 것”



유진투자증권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유진투자증권은 ‘금융투자의 모범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일류 증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경영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SG 경영 강화 의지 대내외적으로 표명

유진투자증권은 ESG 경영 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년마다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본 정보 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자 등 금융투자업계의 ESG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유진투자증권의 활동을 담았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중요성을 전 임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 ESG 경영전략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임직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원고 작성, 디자인 작업까지 맡아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2024년에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사회적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기성장기업 연계투자 강화’와 ‘사회적 투자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전환(DT)·정보기술(IT), 바이오, ESG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서울 성동구청과 함께 ‘성동임팩트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유니크굿컴퍼니, 리하베스트 등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투자조합 펀드를 조성하여 농업기술 혁신에 앞장서는 스마트팜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유진투자증권은 환경, 도시재생, 정보격차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투자조합, 임팩트(Impact) 펀드 등 다양한 비히클(Vehicle)을 활용한 ESG 투자를 준비 중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임팩트 투자와 사회 형평적 채용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임팩트 투자를 진행한 소셜 스타트업 ‘키뮤스튜디오’와 협업해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9명을 유진투자증권 직원으로 채용했다.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인 키뮤스튜디오는 이들이 제작한 아트웍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년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사회적 기업 대상 임팩트 투자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직원 채용도

임직원 자율선택 봉사 프로그램
1억보 챌린지로 탄소 저감 기여
아동센터에 직접 만든 책장 기부



- 1 유진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노을공원에 나무 500그루를 기부하는 1억걸기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약 3만6156kg의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했다. 사진은 임직원이 노을공원을 찾아 직접 나무를 심는 모습.
- 2 유진투자증권은 ESG 경영 강화 의지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 3 유진투자증권 신입사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손수 제작한 책장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아동센터에 책장 기부 등 사회공헌 강화

유진투자증권은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진행해 왔던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유창수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줄곧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방침으로 정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상암동 하늘공원 유진의 숲 조성’, ‘매칭펀드를 통한 보육원 후원’, ‘임직원 1인 2봉사활동’, ‘그룹 연계 기부’, ‘어린이집 및 학술재단후원’,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나눔국민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증하는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임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봉사활동의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자율선택형 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로운 사회공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유진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유진의 숲 가꾸기 ▲홈리스 배식 ▲지역아동센터 배식 ▲장애직원 미술활동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진투자증권은 임직원 건강증진과 ESG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6월에는 임직원들이 한 달 반 동안 1억보를 걸으면 노을공원에 나무 500그루를 기부하는 1억걸기 챌린지를 진행했다. 700여명의 유진투자증권과 금융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여해 목표인 1억보를 크게 초과하는 총 2억 2709만보를 달성했다. 거리로 환산하면 약 15만7207km로, 이를 통해 약 3만6156kg의 탄소 배출량 저감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지난 11월까지 총 500그루의 나무를 순차적으로 기부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노을공원에 유진투자증권 임직원이 찾아가 직접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달 20일에는 입사 2년차 신입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리뷰데이’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신입직원들이 손수 제작한 아동용 책장을 기부했다. 2021년 입사한 직원 33명이 참여해 용산구 소재 공방에 모여 아동용 책장 11개를 제작했으며, 제작된 책장은 영등포 디모데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됐다.

이밖에도 유진투자증권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 ‘에너지 절감 캠페인 시행’ 등 ‘함께 가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본격화하기 위해 ‘ESG경영컨설팅’을 준비 중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ESG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버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7개월 만에 돌아온 타이거 우즈, 세계 랭킹 430계단 상승 /사진 뉴시스
▲여자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내년 1월 아산서 개최

▲프로배구 GS칼텍스, 자선 경매 수익금 전액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
▲배드민턴 대표팀, 항저우AG 은메달 선수 배제 논란



▲대한체육회, 로잔 연락사무소 필요성 강조...“문체부 협조 촉구”
▲빙속 김민선, 월드컵 3차 대회 우승...시즌 첫 금메달 /사진 뉴시스